금수강산

11

2024

루계 제423호 월간

 ISSN 1727—9062

차 례

2024년 11월호

제423호

1989년 8월 창간

표지: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을 찾은 동포들

총련 도꾜도본부 위원장 고덕우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경축 재일본조선인 축하단 성원들이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을 참관하였다.

동포들은 공장의 모형사판앞에서 여러가지 아이스크림과 음료생산공정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9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하신 담화

일군들은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체질화한 공산주의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2024년 10월 10일

오늘 우리는 전당강화의 새로운 전성기, 국가부흥의 전면적발전기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가는 기세찬 진군속에서 주체혁명의 위대한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창건 79돐을 맞이하고있습니다.

장구하고도 영광넘친 투쟁행로를 돌이켜볼수록 조선혁명과 함께, 조선인민과 함께, 이 나라와 함께 세계최장의 사회주의집권사를 아로새겨온 우리 당의 위대함에 대한 자부가 더 뜨겁게 마쳐오고 혁명선렬들이 개척하고 이루어놓은 전무한 창당사와 공적이 더욱 귀중히 새겨집니다.

뜻깊은 당창건일에 즈음하여 나는 간고하고 복잡다단한 투쟁속에서 혁명의 전투적참모부를 탄생시키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조선로동당의 첫 세대 혁명가들에게 불멸의 영광과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혁명의 승리를 믿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지니고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일편단심 당을 충직하게 받들며 당의 투쟁강령실현에 헌신분투하고있는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당창건위업이 성취된 이 력사의 날에 당의 본태가 무엇이며 그 첫 아침이 어떻게 밝아왔고 영광과 승리의 당사가 어떻게 시작되였는가를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 당이 구현해가고있는 새시대 당건설로선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당의 위업에 충실할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굳히는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입니다.

명년이면 창당 80돐입니다.

최장의 집권력사를 가진 혁명적당, 이 말은 단순한 수사학적표현이 아닙니다.

조선혁명의 전위대의 탄생을 세상에 알린 이날의 사변적가치가 더욱 부각되는것은 비단 이날로하여 우리 당이 사회주의집권당력사상 최장의 기록을 새기게 되였다는데만 기인되지 않습니다.

보다는 혁명이 전진할수록 개척기에 창조된 모든 고귀한 재부와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는것이 당의 장래발전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로 나서기때문이며 다름아닌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비상히 자각하고있기때문입니다.

근 80성상을 헤아리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집권력사와 이 나날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은 특유의 심원한 창당리념과 정신, 그 견결한 계승에 연원을 두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장엄한 출발을 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추호의 탈선이나 변색도 없이 세계유일무이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확고히 고수하며 인민대중의 무한한 지지와 신뢰속에 사회주의위업을 백전백승에로 이끌어올수 있은것은 바로 창당의 리념과 정신에 언제나 충실하고 그것을 대를 이어 끗끗이 계승하여왔기때문입니다.

당의 존재와 발전에서 가장 결정적이며 주되는 요인은 어떤 리념과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창건되였는가, 그 순결성을 어떻게 고수해나가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당의 력사적시원과 본태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그 대를 이어주는 명맥에 관한 문제로서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절대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로동계급의 정당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조선로동당의 창당리념과 정신에는 혁명적당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면서 찾아내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그 무궁한 진리성이 검증된 귀중한 철리가 담겨져있습니다.

이 위대한 정신적유산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의 성격과 혈맥을 고수하고 우리 당이 자기의 집권력과 향도력을 끊임없이 장성시키면서 승리의 일로를 걸어올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습니다.

태여나기 전에 벌써 자기의 생명력을 영원토록 담보할 강위력한 정신적토대를 확보하였기에 우리 당의 투쟁행로는 간고하고 복잡다단하였어도 걸음걸음 승리와 성공으로 엮어졌습니다.

건당위업의 개척세대가 창조한 정신적유산이 없었다면 해방직후 형형색색의 주의주장과 당파들이 횡행하는 속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에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창건할수 없었을것이며 건군, 건국의 위업을 성취한데 이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신생조선의 명성과 영광을 떨친 세계사적기적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었을것입니다.

사회주의집권당들이 수정주의, 교조주의의 진탕속으로 빠져들고있을 때에도, 여러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대정치동란이 일어날 때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강령을 변함없이 높이 들고 도도히 나아간 조선로동당의 위상은 혁명적당의 상징으로 빛나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사에는 근로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의 전위대로 출범하였지만 무수한 도전과 반혁명의 공세앞에서 창당초기의 투쟁강령과 창당세대의 혁명정신을 포기하고 변질와해되여 존재마저 끝마친 비극적인 사례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운운하면서 당건설에서 개량주의의 길로 나간다면 불피코 창당초기리념으로부터의 리탈과 사상정신적변색을 초래하고 당의 집권력을 약화시키게 되여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령도의 필수적전제입니다.

하지만 혁명적당이 창건의 첫 기슭에서 내세운 리념과 정신은 추호도 변하지 말아야 하며 절대로 개량되여서도 안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당의 지도사상과 투쟁강령, 당창건의 훌륭한 경험뿐 아니라 당건설의 전 행정에 지키고 구현해야 할 원칙과 기풍이 집대성되여있기때문입니다.

창당리념, 창당정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당의 창건위업을 강력히 견인한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창당이후에도 진함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당의 령도력강화와 양양한 전도를 굳건히 담보한다는데 있습니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부터 전인미답의 험로역경이 중첩되는 속에서도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일관하게 고수하고 변함없이 계승해나가고있으며 이로하여 장구한 집권사를 줄기찬 강화발전과 빛나는 향도의 력사로, 위대한 위민헌신의 력사로 아로새기고있습니다.

집권력사와 령도적권위, 사상리론과 사업방법, 규률에서 우리 당보다 더 오래고 우수한 면모를 지닌 당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당만이 지니고있는 절대적존엄과 위대성이자 창당리념, 창당정신의 숭고성과 위대성이며 우리 당의 무진한 생명력이자 창당리념, 창당정신의 생명력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류례없는 시련을 딛고 과감히 솟구치는 공화국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 어떤 세력도 거스를수 없는 무비의 힘을 지닌 강국의 거룩한 위상을 보며 위대한 리념과 정신의 가치를 심장깊이 새겨안고있습니다.

창당의 표대가 위대하고 그 계승이 위대하면 당의 어제와 오늘, 래일이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진리가 근 80성상에 이르는 조선로동당의 행로에 찬연히 빛나고있습니다.

력사에 의하여 검증된 이 위대한 철리는 앞으로도 영원불변합니다.

우리 당의 혁명적본성과 존재방식을 규정짓는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순결하게 계승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선로동당의 백년, 천년미래와 무궁한 발전이 기약되여있습니다.

위대한 창당의 리념과 정신으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당의 선두에는 마땅히 그에 제일로 충실한 일군들이 서있어야 합니다.

혁명의 전진과 더불어 세대교체가 계속되여도 당의 골간력량인 우리 일군들이 창당리념과 정신을 완벽하게 체현한 공산주의혁명가가 될 때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이 철저히 관철되여 우리 당의 면모와 전투적위력은 백방으로 강화될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자기 발전의 중대한 력사적 시점에서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새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였으며 당창건위업을 완수한 1세대 혁명가들의 리상과 신념, 정신과 기풍을 더욱 숭고한 높이에서 이어나가는것을 간부들의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내세웠습니다.

창당의 리념과 정신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정수로 되여야 합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위업에 대한 헌신성,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과 높은 계급의식,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고상한 도덕품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이며 이를 가장 높은 경지에서 체현한 사람들이 바로 항일혁명투사들이였습니다.

정권도 후방도 없이 백설광야에서 풍찬로숙하며 적수공권으로 혁명을 개척하고 수행한 항일투사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굳게 믿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아름다운 리상과 투철한 혁명신념,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20성상에 걸치는 만고의 항쟁사와 성스러운 창당사를 써왔습니다.

당창건위업과 건국, 건군의 성업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린 항일혁명선렬들은 한생토록 고지식하고 결곡한 모습으로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였습니다.

세월은 멀리 흘러왔지만 1세대 혁명가들의 고귀한 넋은 혁명의 모든 계승세대들을 참된 투사로, 공산주의자로 육성하는 진함없는 자양으로 되고있습니다.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체질화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현시기 더욱 절박하고 중대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전쟁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튼튼히 다져나가면서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지향한 거폭적인 사업들을 전개하고있습니다.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아름차지만 이를 마음놓고 맡길만한 준비된 일군이 적은것이 문제입니다.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창조한 혁명의 1세들은 물론 그들에게서 직접적인 교양과 감화를 받은 2세들, 충신원로들도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있는데 새세대 일군들이 그 위치를 믿음직하게 메꾸고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자면 간부들을 부단히 혁명화하고 간부육성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때문에 당중앙이 간부들에게 건당위업의 개척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할것을 강조하면서 간부사업을 혁신하는데 주력하고있는것이며 근년에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사업을 최중대시하고 천만공수를 들여 학교를 세계에 없는 정치학원, 당간부양성의 최고원종장으로 훌륭히 일떠세운것입니다.

우리 당의 집권력사가 80년을 가까이하고있고 일군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을 세우고 투쟁해온지도 반세기가 훨씬 넘지만 간부혁명화의 기치로서 창당리념, 창당정신을 전면에 제기한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위대한 창당사에 새겨진 원대한 리상과 투철한 혁명신념, 불굴의 정신으로 간부들을 무장시켜야만 우리당 간부혁명화의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고 당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당창건의 리념이 간부들의 삶과 투쟁의 목적으로, 신조로 되고 창당의 정신과 기풍이 간부들의 사고와 행동을 확고히 지배하게 될 때 우리당 간부진영은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대오로 백배해질것이며 우리의 당건설위업은 무진한 발전동력을 확충하여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할것입니다.

모든 일군들은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새 력사를 써나가야 할 막중한 시대적사명과 절박한 현실적요구를 깊이 자각하고 간부혁명화의 불길속에서 자신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군들이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체질화한다는

것은 곧 혁명의 1세들이 지녔던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본능적기질로, 삶의 본령으로 간직하고 오직 그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창당세대가 발휘한 당성, 혁명성, 인민성이야말로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우리 당의 핵심골간인 일군들이 갖추어야 할 3대필수적기질입니다.

일군들은 높은 당성을 지니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드는데서 핵심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존엄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는데서부터 일군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당의 존위이자 우리 국가의 위상이며 우리 인민의 제일가는 긍지이고 영광입니다.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행로에서 자기 당의 존엄과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사수하고 혁명을 보위하여온 전세대들의 숭고한 정신과 공헌이 과거사로만 남게 되여서는 안됩니다.

현시대의 투쟁에서도 당의 존위를 철저히 보위하는것은 응당 우리 일군들의 사고와 활동의 출발점으로, 근본원칙으로 되여야 합니다.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공정과 계기마다에서 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장하는데 빈틈이 있는가를 늘 살펴보고 자그마한 부족점도 없도록 사전에 대책하는것을 습벽화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가시적인 성과보다 당의 권위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심중하게 검토하며 주도세밀하게 조직하고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일군들의 당성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결정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창당초기에는 지금에 비해 환경과 조건도 더 엄혹하고 간부들의 학력이나 경력도 요란하지 않았지만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 정치의식과 정치적감수성은 오늘 우리 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현격한 높이에 있었습니다.

일군들은 첫 세대 혁명가들의 정신세계를 본받아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당정책관철에서 드팀이 없는 견결한 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은 당정책의 진수도 모르고 주관주의적으로, 취미본위주의적으로 사업하는가 하면 당정책을 관철한다고 하면서 도리여 비속화하고 지어 정책적선에서 탈선하여 외곡집행하는것과 같은 심중한 결함들을 발로시키고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당중앙이 무엇을 바라고 의도하고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립각하여 사업을 설계하며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론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당결정을 자그마한 에누리나 편차도 없이 완벽하게 집행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의 당성은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적극 발현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이 튼튼히 견지되였다고 하여 추호도 자만하거나 방심하여서는 안되며 내외의 원쑤들이 일심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틈을 노리고 더욱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음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군들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지키는 전초선에 서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사상적으로 탈색되고 계급적으로 변색된자들과 원칙적이고 무자비한 투쟁을 벌려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해나가야 합니다.

철두철미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선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며 우상화와 특수화, 본위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경향과 요소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비록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즉시에 투쟁의 불을 걸어 철저히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일전에도 우리 일군들이 민심을 다루는 사업을 유리잼반우에 전등알을 담고 달리듯이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민심을 관리하고 단결을 유지하는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며 여기에 항상 긴장, 각성하고 많은 품을 들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철저히 지향, 복종시키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일심단결을 다지는데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정확히 가려보고 당적원칙, 계급적원칙에서 옳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은 투철한 혁명성을 지니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을 우리식 발전전략으로 규정하고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5개년계획의 방대한 투쟁과업을 실행하면서도 농촌진흥, 지방발전의 중장기적인 과제를 더 떠메는 결코 수월치 않은 전략적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책임과 인민의 신임과 기대에 무조건 보답하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의 뚜렷한 표시로서 우리 모든 일군들의 배가된 혁명신념, 혁명투지와 강인하고 헌신적인 투쟁을 요합니다.

창당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당의 위업을 억척으로 떠밀어온 수많은 충신들의 삶이 보여준것처럼 신념과 락관으로 고난을 이기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업에 끝까지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투사가 바로 참된 혁명가입니다.

신념이 없고 미래를 락관할줄 모르는 사람은 혁명하는 보람을 느낄수 없고 고난과 시련앞에서 쉽게 동요하게 되며 직면한 난국을 타개해나갈수 없습니다.

일군들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전면적국가부흥의 밝은 앞날을 확신케 하는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물리치면서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 정치국회의 결정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일군들이 직책상임무수행에서 높은 책임성과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는것이 긴절합니다.

혁명성은 곧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의식이며 불요불굴의 투신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거창한 창조대전이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시대는 높은 책임감으로 충만된 일군, 과감한 전개력과 완강한 투쟁력, 철저한 집행력으로 뚜렷한 실적을 내는 실천가형의 일군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군들속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 보신주의를 비롯하여 책무수행에 뼈심을 들이지 않는 무책임한 일본새가 극복되지 못하여 우리의 전진발전을 저해하고있습니다.

일군들은 맡은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더 좋은 성과, 보다 알속있는 결실을 쟁취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여야 합니다.

혁명을 위함이라면 책임한계를 따지거나 본위주의적인 타산을 앞세우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감도 스스로 솔선 걸머지는것이 참된 혁명가의 자세이며 주인다운 태도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도 자기 소관이 아니면 외면해버리는 무관심성과 본위주의를 타파하고 모든 문제를 당적, 국가적립장에서 보고 대하는 일군다운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성을 체현한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합니다.

우리당 창당리념, 창당정신의 진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입니다.

창당의 첫 기슭에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국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새세상을 일떠세우려는 숭고한 리상과 인민을 위함이라면 한몸 기꺼이 바칠 신념과 의지를 성스러운 붉은 당기에 새겨넣었습니다.

우리 당이 창당리념, 창당정신의 상징인 붉은기를 지켜 투쟁해온 근 80성상은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서의 성격과 본태를 굳건히 고수해온 력사이며 이 력사적과정에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집권당 정치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위대한 경륜을 펼치였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에 속속들이 구현되여있고 우리 인민 누구나가 실생활을 통해 공감하고있는 우리당 특유의 정치신조입니다.

우리 당이 중중첩첩의 국난속에서도 인민의 리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만년대계의 거창한 사업들을 책정하고 어김없이 실행하고있으며 인민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수록 전당이 인민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것과 같은 기풍을 다른 사회주의나라 집권당들에서는 절대로 실행할수도, 모방할수도 없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 바로 여기에 우리당 고유의 본태가 있고 절대의 집권력이 있습니다.

우리 일군들의 인민성은 당중앙이 펼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진심으로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부터 가져야 합니다.

인민관이 바로서지 못한 일군이 인민을 존중할수 없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수 없는것은 자명한 리치입니다.

우리 당이 위대하고도 불멸할 업적을 쌓은것은 바로 창당초기부터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천분으로 삼고 투쟁하여 세월의 변화와 세대의 바뀜에도 관계없이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아왔기때문입니다.

인민을 떠난, 인민과 유리된 당의 그 어떤 로선과 정책, 투쟁과 업적에 대하여 론할수도 생각할수도 없으며 마찬가지로 인민과 리탈된 일군들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일군들은 간부를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간부가 있다는 관점, 어느때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속에서도 인민을 신성시하고 스승으로 떠받드는 립장과 태도에서 절대로 탈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당이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에서 일심단결, 자력갱생과 함께 이민위천의 구호를 더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였는데 일군들은 그 진의도를 자기의것으로 체질화하고 인민앞에 무한히 겸손하고 성실하며 항상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수해지역 인민들을 수도에 데려다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 온갖 지성을 다해 돌보아주고 지방발전정책에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량곡관리시설건설을 추가하기로 한것도 인민은 하늘이라는 우리 당의 의지를 분명히 한 혁명적인 조치입니다.

사업을 하나 조직해도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저촉되지 않는가,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하며 제기되는 문제들도 인민들의 립장에서, 인민들의 편의보장과 복리증진의 견지에서 대하고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은 로동당을 어머니라 불러주는 인민들의 무한한 신뢰를 자신들에 대한 더없는 믿음과 기대로 간직하고 인민을 위한 새 일감을 찾아해내는것을 본분으로 여겨야 하며 인민들이 아파하고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부터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이 바라는 일군다운 품성을 갖추는데서 언행을 바로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러하지만 일군들의 도덕품성문제는 당의 권위와 직결되는 심각한 정치적문제입니다.

일군들이 인민들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잘못하면 당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게 된다는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창당의 첫 기슭에서 튼튼한 기반을 닦고 당의 권위를 세운 혁명선렬들은 만사람이 찬양하는 투쟁공적을 쌓았지만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었으며 특유의 인민성과 군중공작방법으로 건전한 당풍의 토대를 축성하였습니다.

일군들은 열사람앞이든 한사람앞이든 군중을 대할 때 언제나 밝은 인상으로 례절있게 처신하며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진심으로 타이르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극력 낮추고 군중과 허물없이 어울리며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인민을 존대하고 위해주는 고상한 도덕품성과 뜨거운 인정미가 담겨지게 하여야 합니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재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도높이 벌려야 합니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재행위는 우리 당의 창당리념, 창당정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주되는 투쟁대상입니다.

일군들은 자기를 특수한 존재처럼 여기면서 남다른 대우나 바라고 직권을 악용하여 저 하나의 리익을 챙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인민들과 똑같이 생활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합니다.

창당시기로부터 오늘까지 시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고 인민의 선두에서 인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우리 당의 존재방식, 활동방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군들은 자신에게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재의 사소한 요소라도 생긴다면 그것으로써 당에 손실을 끼치고 자기의 정치적생명에도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채찍질하면서 겸손하게, 소박하고 검박하게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일군들속에서 자그마한 세도행위, 관료행위, 부패행위도 나타나지 않도록 동지적인 충고와 방조를 아끼지 말며 가족, 친척들속에서도 불건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늘 각성시키고 교양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이 창당리념과 정신을 체질화한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학습은 일군들이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체득하고 부단히 높여나가기 위한 선차적인 공정이며 간부혁명화의 중요한 방도입니다.

일군들은 학습을 강화하는것이 당성단련, 혁명적수양의 필수적인 요구임을 똑똑히 알고 학습을 자각적으로, 꾸준히, 실속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에 첫째가는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은 주체위업을 향도하는 백승의 기치로서 새시대 당건설과 국가부흥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옳바른 지침을 밝혀주고있습니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정책을 모르고서는 당이 맡겨준 중요한 책무를 제대로 감당해낼수 없고 시대의 전진속도에 숨결과 보폭을 맞출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당문헌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여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여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을 비롯한 현행당정책들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강화하여 그 진수를 정확히 파악하며 거기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감을 똑바로 찾아쥐고 실행대책을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으로 무장하는데서 현시기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새시대 당건설로선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입니다.

일군들은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당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당중앙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5대당건설로선에 대한 학습을 품들여 진지하게 하여 그 진수와 독창성,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신념으로 체득하고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탐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사에 대한 학습도 깊이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는 일군들이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사를 습득하고 주체의 당건설위업의 개척과 전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선렬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는것이 당의 요구입니다.

모든 일군들은 우리 당력사에 대한 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혁명의 1세들이 얼마나 간고하고 시련에 찬 로정을 거쳐 건당대업을 개척하고 훌륭히 실현하였는가, 혁명의 2세, 3세들이 그 넋과 정신을 이어 어떻게 투쟁하여왔는가를 실지 체험한데 못지 않게 환히 꿰들어야 합니다.

혁명적당, 사회주의집권당건설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력사와 전통이 어떤 값비싼 대가로 마련되였는가에 대하여서와 전세대 투사들이 혁명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을 때 당중앙을 어떻게 보위하고 혁명을 어떻게 수호하여왔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체득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이 창당리념과 정신을 체질화한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당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하고 단련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은 일군들이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체득하고 공고히 하는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며 혁명적 단련의 용광로입니다.

일군들은 누구든지 당생활을 게을리하면서 당성단련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변질되여 혁명의 배신자, 반역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당성과 혁명적기질을 고양해나가야 합니다.

일군들이 높은 당조직관념을 지니고 평당원의 자세에서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은 당규약상 의무일뿐 아니라 그자체가 혁명가적풍모를 키워나가는 과정으로 됩니다.

일군들은 련속되는 전투와 행군속에서도 자기 당생활을 스스로 총화하면서 당성단련에 힘쓴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당조직의 결정에 무한히 책임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규률에 복종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정규화적기풍,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기풍이 몸에 푹 배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비판과 사상투쟁의 불도가니속에서 자신을 사상적으로 단련하고 당적수양을 쌓아야 합니다.

자체반성과 원칙적이며 동지적인 비판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당원으로서,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더욱 분발하게 하는 정치적보약중의 보약이며 간부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기본은 사상투쟁입니다.

일군들은 당규약과 규범을 자막대기로 하여 늘 자신의 당생활을 량심적으로 검토하며 자기의 결함을 당조직앞에 스스로 터놓고 대담하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동지들에게서 결함이 나타났을 때에는 당의 사상과 정책, 당규률에 준하여 원칙적인 비판을 주어야 하며 그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결함을 고칠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일군들을 창당리념과 정신을 체질화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우는 사업의 성과여부는 당조직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일군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높여나가는 사업은 결코 자각성 하나만으로는 원만히 해결할수 없습니다.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온갖 비조직적이고 무규률적이며 부정적인 요소들을 묵인하고 속수무책한다면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끝까지 고수할수 없고 결국에는 당과 혁명의 전도를 담보할수 없게 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간부혁명화가 당의 존망, 사회주의위업의 성패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일군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당안에 기강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일군들이 당내규범과 질서를 잘 알고 그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며 맡은 임무수행에 매진하여 뚜렷한 실적을 낼수 있게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에 준하여 일하도록 엄격히 장악지도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속에서 아래단위에 대한 지도사업이나 일상생활과정에 당적원칙과 규률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하고 통제하며 일단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묵과하지 말고 문제를 세워 고쳐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일군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그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우고 근기있게 밀고나가며 그 과정에 나타나는 편향들을 적시적으로 바로잡으면서 부단히 심화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해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8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아울러 당중앙위원회 제8기사업을 결속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는 당창건 80돐을 최장의 사회주의집권사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당강화와 국가건설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분수령을 이루는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지금부터 잘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정책적과업들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은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체질화하고 전당강화와 국가부흥의 가장 빛나는 시대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에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성스러운 리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배가된 자신심과 충천한 기세로 하여 더욱 활기차게,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개척의 뜻도 진리이고 그 승리도 진리입니다.

선렬들의 위대한 넋이 우리를 고무하고있습니다.

모두다 위대한 당의 핵심골간,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 높은 영예와 무거운 책임을 백배의 분투와 떳떳한 사업실적으로 빛내이며 새시대 혁명의 앙양기를 힘차게 떠밀어나갑시다.

*　　　*　　　*

조선로동당창건 79돐 경축공연 성대히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9돐 경축공연이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혁명사상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세계최강의 사회주의집권당의 불후의 존엄과 영광을 찬연히 빛내이시며 전면적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강용히 펼쳐가시는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당창건일을 맞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무력기관 일군들, 성, 중앙기관과 시안의 당일군들, 중앙간부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국가수반의 개인초청손님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동지를 비롯한 대사관의 주요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녀성중창과 남성합창 《조선로동당 만세》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주체혁명위업완수를 위한 영웅적장로에서 우리 인민이 위대한 당을 우러러 터친 로동당송가들과 애국의 노래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불멸의 조선로동당찬가들을 통하여 세계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뉴대를 과시하며 탁월한 령도력으로 부국강병의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고 최전성기를 펼쳐가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의 세계를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세월의 풍파를 다 막아주며 천만자식을 품에 안아 행복을 주고 영광의 절정에 올려세워준 어머니 우리 당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심을 풍만한 서정과 생활적인 시어들로 형상한 가요 《내 운명의 품》은 당과 인민대중사이에 피줄처럼 맺어진 특유의 정을 감명깊게 펼치며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이 세상 제일 아름답고 위대한 내 나라, 내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길에 한생의 넋과 숨결을 정히 묻어갈 애국의 지향과 열정을 진실하고 숭엄하게 구가한 《조국에 대한 노래》, 《열망》에도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이 세상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진함없을 일심충성과 신념의 노래들로 만장을 격동시킨 공연은 녀성중창과 남성합창 《우리의 국기》, 녀성독창과 남성합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절정을 이루었다.

격정의 환호성과 함께 황홀한 축포탄들이 눈부시게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연성과에 만족을 표시하시며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계승, 걸출한 령도, 뜨거운 사랑으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우리 당 강화발전의 최전성기로 빛내여나가기 위한 성업에 무한히 충실할 불같은 맹세를 우렁찬 환호에 담았다.

조선로동당창건 79돐 경축공연은 창건도 위대하고 발전의 전 력사도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더불어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하려는 전인민적사상감정을 승화시켜주며 어머니당의 탄생일을 의의깊게 장식하였다.

*　*　*

조선로동당창건 79돐 경축연회 진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9돐 경축연회가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록지공원에서 진행되였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강위력한 보루로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에서 79성상의 집권사를 아로새기는 의의깊은 날을 맞이한 참가자들의 격정과 환희가 연회장에 넘쳐흐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한 령도실천으로 우리 당의 순결한 계승과 강화발전, 우리 국가의 부흥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세기적변혁의 영웅전기를 펼쳐나가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였다.

연회에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원, 연구사들이 초대되였다.

국가수반의 개인초청손님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동지를 비롯한 대사관의 주요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빛나는 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위대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에로 인도하시는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여,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우리 인민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　　*　　*

조선로동당창건 79돐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당창건사적지를 참관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9돐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따라 국가발전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9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경모의 대하가 굽이쳐흘렀다.

조선로동당창건 79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았다.

한편 경건한 마음으로 광장공원에 들어선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10월명절을 맞으며 당창건사적지를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원, 연구사들 그리고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년학생들이 참관하였다.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향도적력량,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새겨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당창건기념탑을 찾았다.

각지에서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였다.

10월의 하늘가에 솟아오르는 국기를 우러르며 참가자들은 당중앙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갈 결의들을 다지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9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사스러운 10월명절을 맞으며 진행된 기관차팀과 소백수팀사이의 공화국선수권대회 남자배구경기는 명절분위기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9돐경축 제5차 전국조각, 공예축전이 진행되는 평양국제문화회관을 찾은 참관자들은 위대한 어머니당에 드리는 축원의 마음이 어려있는 조각, 공예품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각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경축모임, 웅변모임 등이 있었다. 출연자들은 인민들을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켜 이 땅우에 인민의 숙원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워가는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령도사를 긍지높이 되새기였다.

수도 평양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명절을 경축하는 공연들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9돐경축 만수대예술단 공연과 국립교향악단 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은 줄기차고도 억센 힘으로 새시대를 펼친 조선로동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의 신뢰심, 주체의 당기아래 더 밝고 희망넘칠 래일에 대한 확신을 잘 보여주었다.

국립연극극장과 국립교예단 예술인들의 공연은 명절을 맞는 수도시민들에게 랑만과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수도의 곳곳에 전개된 야외공연무대들도 경축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였다. 공연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열과 정을 다 기울여 인민을 보살피시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천만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민헌신의 세계를 뜨겁게 새겨안았다.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남포시 등지에서도 다채로운 공연무대들이 펼쳐졌다.

조선로동당창건 79돐을 맞으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이 진행되였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79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진행되였다.

라자구등판에서

(전호에서 계속)

김명산과 함께 반변해들어왔던 나머지 중국인 대원들은 이러한 공포분위기에 놀라 부대를 탈출하여 마촌근방에 주둔하고있는 관보전부대에 찾아갔다. 유격대가 중국사람들을 함부로 총살한다는 그들의 선전을 듣고 위험을 느낀 관보전은 유격대의 주둔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깊은 골짜기에 부대를 이동시켜가지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할 기회를 노리였다.

10월혁명기념일이 되자 왕청사람들은 낟창과 몽둥이와 같은 원시적인 무기들을 휴대하고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그들이 이런 유치한 무기들을 들고 기념식장에 나타난것은 행사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였다.

기념식장에 사람들이 집결하는것을 자기네 부대에 대한 공격준비라고 잘못 판단한 관보전은 분개하여 자기의 수하에서 참모장의 직책을 가지고 구국군대원들에 대한 교양과 통일전선운동을 추진시키고있던 유격대공작원 김은식과 홍해일, 원홍권 등 여러명의 조선사람들을 총살하였다. 속담에도 있는것처럼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와도 같은 역습이였다.

그후 투쟁을 포기한 관보전의 부대는 삼삼오오 떼를 지어 적의 통치구역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왕청부대는 관부대의 투항을 막는다고 하면서 몇차례에 걸쳐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무장을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고 하여 관부대의 투항병 몇명을 죽이였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하여 관보전부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복수전을 시작하였다. 조선청년들중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붙들어다가 총살하였다. 조직된지 몇달 되지 않은 왕청유격대는 반일부대에 포위되여 많은 희생을 내였다.

반일부대와의 관계에서 발로된 이와 같은 미숙성과 무분별성은 조중관계를 급격히 약화시키고 조선혁명앞에 헤여나기 어려운 함정을 파놓았다.

회의참가자들은 반일부대와의 관계를 망쳐놓은 다음에도 그 과오의 엄중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무슨 복수를 운운하는 왕청유격대의 지휘관들을 가차없이 비판하였으며 장시간에 걸치는 론의를 거쳐 구국군과의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행동조례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에 대한 공통적인 리해에 도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가 회의에서 론의한것은 어떻게 하면 구국군의 발목을 만주땅에 잡아매두고 그들로 하여금 항일을 계속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구국군은 그 당시 수만명에 달하는 력량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자기들에게 일본군을 당해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일본사람들 자신이 류포시킨 《천하무적》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말 이 세상에는 일본을 당해낼 힘이 없고 일본군대에 대적할만한 군대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투쟁을 거의나 포기하였다. 그들에게 남은것이란 어떻게 하면 일본군에게 죽거나 포로되지 않고 아직 전쟁의 불찌가 튀지 않고있는 산해관너머로 안전하게 피신할수 있겠는가 하는 타산뿐이였다.

일본군은 간도지방에서 왕덕림부대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있었다. 일본군이 왕덕림부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게 되면 라자구도 불원간 적의 수중에 들어갈수 있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어떻게 하나 구국군과 함께 라자구를 사수하자고 결의하였다. 라자구를 사수하자면 왕덕림을 설복하여 그가 쏘련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해야 하였다. 구국군의 속심은 쏘련을 거쳐서 중국본토로 가자는것이였다. 반일부대 두령들과 병사들속에서 쏘만국경을 넘어가는것은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었다. 수만명의 병력을 가지고있던 리두와 마점산도 쏘련을 경유하여 중국본토로 달아나버리였다. 구국군의 도주를 막을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일본군과 전투를 한번 본때있게 하여 그들의 머리속에서 《무적황군》에 대한 환상과 공포심을 완전히 숙청해버리는것이였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가운데서 왕덕림을 설복할수 있는 적임자는 주보중이였다. 주보중은 국제공산당의 위임을 받고 왕덕림의 고문으로 활동하고있었다.

나는 주보중에게 왕덕림을 설복하여 그가 어떤 일이 있던지 퇴각을 중지하고 유격대와의 련합전선에 나서도록 해보라고 권고하였다.

《우리는 동만에 거주하는 조선사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유격전을 장기적으로 할수 있소. 문제는 구국군인데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왕덕림을 설복해서 그들이 만주땅에 버티고서서 최후의 한사람까지 항전을 계속하도록 해야 하오. 그 사람들이 쏘련으로 가겠다는건 씨비리에 가서 사회주의혁명을 하겠다는것이 아니고 쏘련땅을 거쳐 관내로 도망치려는것이요.》

주보중은 그 말을 듣자 해결하기 힘든 숙제라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당신들이 아직 속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국군이라는건 사실 겁쟁이들의 집단이요. 일본놈들의 비행기가 우르릉 하고 삐라 한장만 뿌려도 부들부들 떨면서 꽁무니를 빼는 시라소니무리란 말이요. 그러니 도저히 전투를 해볼수 없구만. 그렇게 비겁한 무리들을 나는 난생처음 보았소. 구국군과 련합하여 일본군을 친다는건 망상이나 다름없소.》

주보중과 같이 련합불가능설을 제창하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였다. 이렇게 되여 의견대립이 생기고 불가능론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였다. 그때는 다 제마끔 영웅이고 천재고 지도자였다. 구국군병사공작위원회라고 하는것은 각지에 나가서 지방공작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림시적인 조직인것만큼 누구라고 할만한 지도자가 없었다.

그러나 회의는 내가 의장이 되여 집행하였고 회의는 회의대로 다하였다. 내가 의장으로 회의를 집행한것은 직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구국군들과의 사업에서는 **김일성**이 로장이라고 하면서 중국동무들이 나를 추대하였기때문이였다.

이것이 바로 라자구회의다. 구국군병사공작위원회로서는 마지막회의였다. 이 회의를 마감으로 병사공작위원회는 해체되였다.

라자구회의의 결정에 따라 나와 리광, 진한장과 주보중, 호진민은 왕덕림부대, 오의성부대, 채세영부대와의 사업을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 오의성과 채세영은 다 왕덕림의 부하들이였다.

얼마후 오의성부대에 간 진한장한테서 통보가 왔다. 오의성이 라자구회의의 방침에 응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락관적인 소식이였다.

내가 왕덕림부대와의 사업을 하고있을 때 일본군이 라자구일대로 밀려들었다. 적들은 우리 주력부대가 왕덕림부대와 련합전선을 형성하면 큰일이라고 하면서 대병력을 동원하여 빠른 속도로 공격해왔다. 왕덕림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라자구에서 도망쳤다. 수천수만명의 대병력이 돌개바람에 말려가는 가을락엽처럼 일본군의 탄막을 피해 쏘만국경쪽으로 철퇴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수지공예 《송학연년》

수지공예 《송학연년》은 2013년 7월 재중항일혁명투사 김선가족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삼가 올린 선물이다.

《송학연년》이라는 말은 소나무와 학처럼 오래도록 산다는 뜻을 담고있다.

일 화

위민헌신의 나날에

운동시설을 갖추어주도록 하시여

2012년 4월 30일 체모가 잡혀가는 릉라인민유원지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놀이장도 돌아보시였다.

물미끄럼대의 정점까지 몸소 오르시여 건설정형을 료해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약대와 수조를 건설할 위치를 잡아주시고 공사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물놀이장구역과 인도로를 분리시키고 안쪽에 모래터배구장과 롱구장, 배구장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그 어느 나라에 가보아도 물놀이장에는 반드시 운동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배구장이나 롱구장에서는 사람들이 체육복을 입고 운동하는것이 아니라 수영복을 입고 운동한다고 하시며 물놀이장에 조약대와 수조, 모래터배구장과 롱구장, 배구장까지 꾸려놓아야 만점짜리 물놀이장이 될수 있다고 하시였다.

몸소 축구경기를 관람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2년 10월 29일 **김일성**경기장에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제12차 인민체육대회 체육단부문 남자축구결승경기 4.25팀과 선봉팀간의 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제12차 인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만족해하시였다.

경기가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신 그이께서는 경기를 만족하게 보았다고 하시며 경기에서 이긴 4.25팀의 선수들과 감독들을 주석단앞으로 부르시여 그들의 승리를 축하해주시였으며 나라의 체육발전에서도 앞장서야 한다고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기장바닥의 선봉팀선수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선봉팀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패한것만도 섭섭하겠는데 자신께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면 오늘 밤잠을 자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며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그러시고는 달려올라온 선봉팀의 감독, 선수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고나서 선봉팀이 오늘 경기를 잘했다고, 조직된지 1년밖에 안되는 선봉팀이 4.25팀과 맞선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앞으로 훈련을 더 잘해서 다음번에는 꼭 1등을 하라고 고무해주시였다.

이날 선수들과 감독, 심판원들,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체육은 조국의 존엄을 지키고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데서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데 대하여, 체육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고 국가적인 방조를 강화하며 특히 일군들이 체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 부문 사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줄데 대하여 그리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다기능, 다용도로

2014년 5월 30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몸소 찾으시였다.

체육관에서 롱구소조원들의 훈련과정을 지켜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소조원들이 리용하는 공의 질이 시원치 못하다는것을 아시고 동행한 일군들에게 체육학교와 체육단들에 좋은 체육기자재들을 제대로 보장해주자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체육기자재공장을 빨리 건설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몸소 롱구대의 규격까지 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체육관을 배구와 롱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종목의 운동을 할수 있게 다기능, 다용도로 꾸리도록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다기능, 다용도,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세워주신 기준이였다.

*　　*　　*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될것이다

- 체육성 국장 박천종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기자: 지난해 조국의 발전행로에 자랑찬 체육성과를 아로새긴 체육인들이 올해의 국제경기들에서도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고 세계의 하늘가에 조국의 국기를 높이 휘날리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

국장: 그렇다.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발생한 이후 근 4년만인 지난해에 국제경기에 출전한 우리 체육인들은 제19차 아시아경기대회, 제22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2023년 국제력기련맹 그랜드상경기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쟁취하고 세계기록들을 련이어 돌파하였다.

올해 우리의 체육인들은 2024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32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2024년 아시아축구련맹 20살미만 녀자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단연 1위를 하고 국제축구련맹 2024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월드컵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국제체조련맹 세계컵기계체조기재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특출한 경기성적을 거두었다. 2024년 아시아축구련맹 17살미만 녀자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은 우승컵과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국제축구련맹 2024년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 결승경기에까지 진출하였다. 이와 함께 박주경, 전일청선수는 각각 최우수문지기상과 최고득점자상을 수여받았다.

뿐만아니라 지난 10월 까자흐스딴에서 진행된 2024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김금영선수는 다양한 전술을 적극 활용하고 특기기술을 잘 살려 맞다든 상대선수들을 물리치고 단연 1위를 쟁취하였다.

지금 더 훌륭한 경기성과로 조국의 영예를 떨쳐가려는 우리 체육인들의 열의는 비상히 높다.

2024년 국제력기련맹 세계컵경기대회에 참가하여 4개 몸무게급의 7개 세부종목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였다.

2024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7건의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고 32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기자: 국제경기들에서 우리 체육인들이 뚜렷한 실적을 내는것을 볼 때마다 체육의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국장: 체육의 과학화수준이자 곧 경기성과라고 할수 있다.

체육과학연구소와 체육의학연구소, 체육영양연구소를 비롯한 과학연구단위들에서는 교수훈련과 경기성과를 과학적으로 담보할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해 열린 제25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 수백건의 가치있는 체육과학기술성과들이 출품된것만 보아도 우리의 체육과학기술의 발전면모를 알수 있다.

체육의 과학화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체육인들의 육체기술적지표는 향상되고있으며 력기종목에서만도 적지 않은 선수들이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였다.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밀고나가고있다.

기자: 사회주의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선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부문에서 세운 목표도 높다고 본다.

국장: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지위에 맞게 메달획득수를 지속적으로 늘여나가는것은 체육부문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체육성에서는 체육의 상징종목인 축구를 한계단 추켜세우며 롱구, 배구를 비롯한 구기종목 그리고 력기와 같이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있는 체육종목과 국방체육종목, 레스링종목, 바드민톤종목 등 여러 종목들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국제축구련맹 2024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월드컵을 쟁취하였다.

현대체육경기는 선수들의 육체, 기술, 전술적대결인 동시에 감독들사이의 두뇌전이다.

체육성에서는 선수들이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리는것과 함께 다양한 경기전법과 전술을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주목을 돌리고있다. 한편으로는 감독들이 담당한 선수들의 심리적, 체질적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훈련리론과 방법들을 끊임없이 탐구적용하고있으며 경기시 부닥치는 각이한 정황에 능숙하게 대처할수 있는 다양한 경기전술과 체계를 보다 완성하도록 하고있다.

김금영선수는 2024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하였다.

체육과학기술발전에 주목을 돌려 독창적인 경기전법을 창조하고 새로운 훈련수단과 방법을 창안도입하며 체육정보사업을 잘하여 체육기술일군들의 실무수준과 능력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고있다. 또한 공화국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내체육경기들의 수준을 높이고 전도유망한 체육선수후비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성있게 내밀고있다.

인민들은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우리의 국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나라의 영예를 만방에 떨쳐가는 미덥고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될것이다.

* * *

조국에서 11월 16일은 어머니날이다.

본사편집국에서는 이날을 맞으며 개성시에서 살고있는 평범한 한 녀성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평범하면서도 남다른 녀인

최춘명

마을의 아이들은 최춘명녀성을 《우리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고있다.

평범한것과 남다른것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이다. 하지만 조국에서 배출되는 영웅들이나 공로자들을 보면 굳이 그렇다고 볼수도 없다.

개성시 장풍군에서 만나본 최춘명녀성을 보아도 그러하였다.

현재 그가 하는 인민반장사업은 평범한 일이다. 우리가 만나본 이 녀성은 옷차림도 수수했고 외모나 행동거지, 말투를 보아도 특별한데가 별로 없었다. 그의 경력을 보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장풍군고치농장으로 탄원하였고 가정을 이룬 후에는 근 30년간 인민반장사업을 해오고있다.

하다면 어떻게 되여 그가 남다른 길을 걸을수 있었는가.

사실 이 물음은 우리가 최춘명녀성에게 했던것이였다. 그때 녀인은 그 대답으로서 개성시인민위원회 일군이였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나라에서 걱정하는 농사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보려는 마음을 안고 자진하여 장풍군의 어느한 농장일군으로 내려간 사실과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여 농장의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대해서, 해마다 애써 가꾼 낟알을 애국미로 바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군 하던 아버지의 모습 등은 자기에게 애국이란 어떤것인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계기들이였다고 하였다.

그후 중학교를 졸업한 최춘명녀성은 아버지가 농장에 내려간것처럼 군고치농장으로 탄원하게 되였고 가정을 이룬 후에는 인민반장사업을 하면서 직장일이 바빠 퇴근이 늦어지거나 급병으로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 돌봐주었다. 그러자니 어떤 때에는 팽이처럼 돌아도 손이 모자랐고 곁을 잘 주지 않는 아이들때문에 속이 타 눈물도 적지 않게 흘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 모든것을 이겨내며 그는 아이들을 잘 먹여주고 입혀주는것만이 아닌 원칙적인 교양으로 나라의 역군으로 키웠으며 인민반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되게 하였다.

이 나날 그는 인민군대를 원호하고 사회주의건설장을 비롯한 많은 곳들에 자기의 성의가 깃든 지원물자들을 보내는 사업도 중단없이 하였다.

그에게 무엇이 많아서가 아니였다. 때로는 지원물자가 너무도 소박하여 얼굴을 붉혔고 공민적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누군가가 지은 시구절을 조용히 외워보며 마음을 가다듬기도 한 그였다.

…

애국은 너도 하고 나도 해야 한다
나라안에 네 이름도 있고 내 이름도 있거니
애국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자
배고플 때도 하고 배부를 때에도 하자

…

그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생을 변함없이 애국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최춘명녀성은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만이 아닌 수많은 평범한 녀성들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을 걸고있기에 조국이 끄떡없고 강한것이라고 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보낸 추억깊은 나날들에 대하여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주고있다.

묘향산 의료기구

첨단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은 수십종의 첨단의료기구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이다.

지난해 진행된 전국보건부문과학기술성과전시회-2023에 치과종합치료기, 이비인후과종합치료기, 코약분무병, 탈세동기, 미량주입기, 환자감시기를 내놓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장에서는 얼마전에도 대중적기술혁신으로 자동점적기, 흡인기를 비롯한 각종 의료기구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하여 각급 치료예방기관들에 보내주었다.

공장에서는 원가를 줄이면서도 보건부문에서 요구되는 의료기구의 다양화, 다종화를 실현하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내걸고 기술력량강화에 주력하여왔다.

공장에서 생산한 의료기구들의 일부

공장일군들은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그 실천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현대과학기술지식을 부단히 습득하도록 하는 한편 누구나 선진의료기구들에 대한 자료들을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자료기지들을 충분히 구축하여 학습조건을 보장해주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통한 기술학습과 현장전습도 적극 배합하는것과 함께 기능공들과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주의경쟁도 실속있게 벌려나갔다.

따라배우기, 따라앞서기,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비인후과종합치료기의 현미경과 치과종합치료기의 입안촬영기를 자체로 제작하고 사출공정의 국산화를 실현한것을 비롯하여 기술자, 종업원들이 내놓은 16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 창의고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여 의료기구의 질과 미학성,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은 의료기구들의 성능을 더욱 개선하며 원가를 줄이고 설비,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리철

《새봄》 식료품생산자들

금성식료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새봄》상표를 단 식료품들이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그 비결에 대해 공장기사장 정근철은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제고와 새 제품개발을 경영활동의 중점으로 내세우고 종업원들의 창의창발성을 부단히 계발시키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보장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있다.

빵, 과자, 사탕, 고기가공품, 밀쌈, 국수생산공정 등 7개의 생산공정들에 대한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여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을 받은 공장에서는 얼마전에도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품질검사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이였다.

이외에도 젓가공품생산공정을 비롯하여 새로 꾸려놓은 생산공정들에 선진적인 설비들을 더 갖추어놓아 제품들의 위생안전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도록 하였다.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사업에서도 진전을 이룩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기술자들이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종업원들이 새 제품개발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기술자들은 로동자들속에서 새로운 착상이 제기될 때마다 실천에 도입할수 있도록 실속있게 도와주고있다. 그리고 과학기술보급실운영시간을 리용하여 로동자들에게 세계식료공업발전추세와 선진식료가공기술도 알려주어 체득한 지식을 새 제품개발사업에 활용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공장에서 분기마다 의의있게 진행하는 새 제품개발사업에 앞장선 종업원들에 대한 평가사업도 대중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더욱 배가해주고있다.

종업원들모두가 새 제품개발사업을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것으로 하여 지난 한달어간에만도 공장은 맛좋고 모양과 형태도 다양한 효모빵류 30여점, 단설기류 20여점을 비롯한 수십점의 새 제품을 개발생산하였다.

현재 빠다효모빵, 크림장식빵, 말이단설기, 감자영양과자, 물고기쏘세지를 비롯하여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제품들에 대한 인기령역은 계속 넓어지고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전국식료품전시회-2024에 공장은 많은 제품들을 내놓았으며 제품들모두가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으며 상표도안과 제품포장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다양한것으로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금 공장의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인민들이 선호하는 새 제품들을 부단히 개발하고 그 질을 끊임없이 개선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스팀교육의 면모를 보여주다

지난 8월말 평양교원대학에서 《강국의 미래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제1차 보통교육부문 교종별로보트경기가 진행되였다.

제1차 보통교육부문 교종별로보트경기는 교육부문에 스팀(STEAM)교육수단을 도입하고 교육과 생산을 결합하게 하는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경기에는 각 도에서 선발된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는 도별, 교종별로 3명이 한조가 되여 제작한 운반로보트가 제시되는 정황을 처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특히 강원도의 원산제1중학교 학생들이 만든 로보트들이 참관자들의 인기를 모았다. 이곳 학교의 고급반학생들인 배성준, 김형은, 리태성학생들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이 현실로 꽃펴나는 자기 도의 공장들에서 실지 리용될 운반로보트를 만들기 위해 착상을 거듭하였다. 윤상일교원의 지도밑에 이들은 김화군식료공장에서 쓰일 운반로보트제작에 달라붙었다. 불빛추적으로 한번에 50kg의 짐을 싣고부리는 로보트는 김화군식료공장에서 환영을 받았으며 현장도입증을 받고 경기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절찬을 받았다.

원산제1중학교 학생들이 로보트의 상태를 점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동평양제1중학교, 평양교원대학부속 보통강구역 세거리소학교의 학생들이 내놓은 로보트들도 운반, 장애물극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것으로 하여 이채를 띠였다.

남포시의 천리마구역 포구소학교 학생들은 짐을 운반하는것은 물론 그림도 그릴수 있는 로보트를 만들어 경기에 출전하였다.

함경북도의 청진시 포항구역 남강소학교 김대영, 최권웅학생들이 만든 음성을 인식하여 움직이는 로보트도 박수갈채를 받았다.

경기는 로보트의 기능과 로보트를 제작한 학생, 어린이에 대한 평가로 하였다.

로보트에 대한 평가는 해당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에 맞게 생산현장과 교육기관에서 로보트를 리용할수 있는 정도, 사람의 일을 대신할수 있는 정도, 로보트부분품리용의 다양성과 원가절약정도, 생산가능성 등을 놓고 진행되였다. 장애물극복과 기계팔에 의한 쌓기, 정보전달 등 로보트가 특이한 기술을 발휘한 경우에는 추가점수도 주었다.

로보트를 제작한 학생과 어린이에 대한 평가는 로보트제작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 학생이 자기가 만든 로보트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발표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학생들과 어린이들은 로보트를 만드는 과정에 느낀 점, 결의 등을 외국어로 발표도 하였다.

경기에서 1등을 한 동평양제1중학교 학생들

경기에 출품된 로보트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있다.

교육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경기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로보트들은 시범적인 스팀교육수단으로 전국에 보급일반화되게 된다고 하였다.

교육성 국장 동철민은 《운반로보트라는 명칭은 같지만 매 로보트들의 모양새는 각이하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로보트들에는 하루빨리 나라의 인재가 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우리 학생들의 하나와 같은 모습들이 비껴있다.》라고 말하였다.

경기를 참관하였던 로씨야 연해변강 교육일군대표단 단장 엘비라 샤모노바는 운반로보트가 가져온 우유고뿌를 받았다고 하면서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지적능력과 외국어실력에 감탄을 표시하였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자기가 만든 로보트를 조종하고있는 어린이들

음악예술교육의 전당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글 본사기자 김승기
사진 본사기자 김평

조국에서 진행되는 국가적인 공연들과 음악회들에는 관중들의 마음을 틀어잡는 명가수, 명연주가들이 자주 등장하고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졸업생들이다.

력사가 있는 대학

1949년 3월 1일에 창립된 대학은 75년의 자랑찬 로정을 걸어오면서 우리 나라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음악무용종합대학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일떠선 대학의 총부지면적은 5만㎡이고 연건축면적은 4만여㎡이다.

대학에는 성악학부, 민족기악학부, 양악기악학부, 작곡학부, 피아노학부, 악기제작학부, 원격교육학부, 초등 및 중등교육학부, 박사원과 조선민족음악연구소 등이 있다.

또한 부속학원으로 음악학원과 무용학원을 가지고있다. 풍부한 무대 및 교수경험을 가진 관록있고 권위있는 교육자들과 국제콩클수상자들로 교수진영이 꾸려져있으며 음악예술교육부문의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도 갖추어져있다.

뿐만아니라 챠이꼽스끼명칭 국립음악대학, 그네씬명칭 국립음악아까데미야, 쇼뺑음악종합대학, 싼따체칠리아음악대학 등 세계 여러 나라 음악예술교육 및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지난 기간 대학은 수천명의 졸업생들과 수백명의 명예칭호소유자들, 이름난 국제, 국내콩클수상자들을 배출하였다.

대학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차례 찾아오시여 교육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불멸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국가의 관심속에 있는 대학은 음악예술교육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나가며 조선예술의 화원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있다.

미래가 담보된 대학

인민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들을 키워내는것, 이것이 대학에서 내세우고있는 일관한 목표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음악교육구조를 혁신하고 그에 맞게 교육내용과 교육방법들도 부단히 혁신해나가고있다.

특히 연구형교수방법, 연구형학습방법에 기초한 교차학과교수방식, 협동교수구조와 착상, 설계, 실행, 운영방식에 기초한 안삼블교수구조 등을 적극 연구도입하고있다.

성악학부 대중가요강좌에서는 여러 학과가 교차되며 이루어지는 협동교수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전공과목뿐 아니라 타악기, 음향, 률동 등 여러 학과목들에 대한 폭넓고 실리있는 종합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들에서만 도입한 착상, 설계, 실행, 운영방식의 교수구조를 음악교육에 구현하여 전수식교육으로부터 무대예술창조교육으로 방향전환하고있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의 창조적능력과 실천적응능력을 높여주고있다.

학생들은 교재곡에만 매달려 발표회와 시험에만 집착하던 종래의 교육에서 벗어나 새롭고 독창적인 창작품들과 공연종목들을 직접 창작창조하고있다.

하여 학생들은 재학기간에 국가적인 공연들에도 출연하여 풍부한 음량과 독특한 음색으로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있다.

제1부총장 렴동선은 《우리 대학은 김원균선생님의 이름으로 불리우고있다. 우리는 학생들을 그와 같은 훌륭한 음악가로 키우겠다.》라고 말하였다.

김원균

그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1946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1947)년 등 많은 명곡들을 창작하였다.

당시 국립예술극장 작곡가, 평양음악무용대학 학장으로, 그후에는 피바다가극단 총장 겸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제음악리사회 명예위원, 조선민족음악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였으며 **김일성**훈장,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예술가칭호를 수여받았다.

《이돌-2024》 금상의 주인공들

지난 시기 조국의 체력교예 《다각비행》, 《정복자들》, 《공중전회비행》, 《비행가들》, 《철봉비행》을 비롯한 많은 교예작품들이 세계적인 교예축전들에서 최고상과 특별상을 받았다.

교예작품들은 기백이 넘치고 참신한것으로 하여 관중들과 심사자들에게 희열과 랑만을 안겨주었으며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그것은 몇해전 로씨야의 우드무르찌야공화국 이줴스크시에서 진행된 제12차 이줴스크국제교예축전 시상식에서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로씨야국가교예회사 총사장이 조선의 교예발전에 세계교예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 말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조국의 교예배우들은 또다시 세계무대에서 부단히 전진하고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 7월 모스크바 볼쑈이국립교예극장에서 《이돌-2024》세계교예예술축전이 진행되였다.

조국의 교예배우들은 체력교예 《날으자 더 높이》를 가지고 축전에 참가하여 최고상인 이돌금상을 쟁취하였다.

공중교예는 지상체력교예와는 달리 높은 곳에서 진행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난도가 대단히 높다. 더우기 공연에 출연할 배우들의 대부분이 신인배우들인데다가 훈련기일은 불과 수십일밖에 안되였다.

특히 이 작품은 지난 시기 오교국제교예축전을 비롯한 여러 교예축전에서 최고상을 수여받고 적지 않은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서 공연되여 관람자들의 찬탄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 종목에 출연할 배우들의 심리적압박감은 컸다.

공중에서 두 배우의 결합이 리상적으로 이루어지자면 보통 1년간의 훈련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 조를 무은지 불과 수십일만에 안전바줄이 없이 밀재주배우와의 리상적인 결합을 실현해내였다.

특히 신혼부부인 리충억, 장하향배우들은 가정의 단란한 생활도 뒤로 미루고 작품창조에 자기들의 열정을 쏟아부었으며 이들의 높은 훈련열의는 동료들을 말없이 떠밀어주는 원동력이 되였다. 이 과정에 공중4회전돌아잡기를 수행한 변철웅배우는 모든 동작들을 눈을 감고도 수행할수 있을 정도로 익히였으며 다른 배우들도 눈빛과 몸짓으로 서로 의사가 통하는 일심동체가 되였다.

작품을 완성한 이들은 자만을 몰랐으며 자신들에 대한 요구성을 계속 높이였다. 《이돌-2024》축전이 진행되게 될 모스크바에서도 자기들이 수행할 동작들을 보다 세련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게 기울인 노력은 좋은 결실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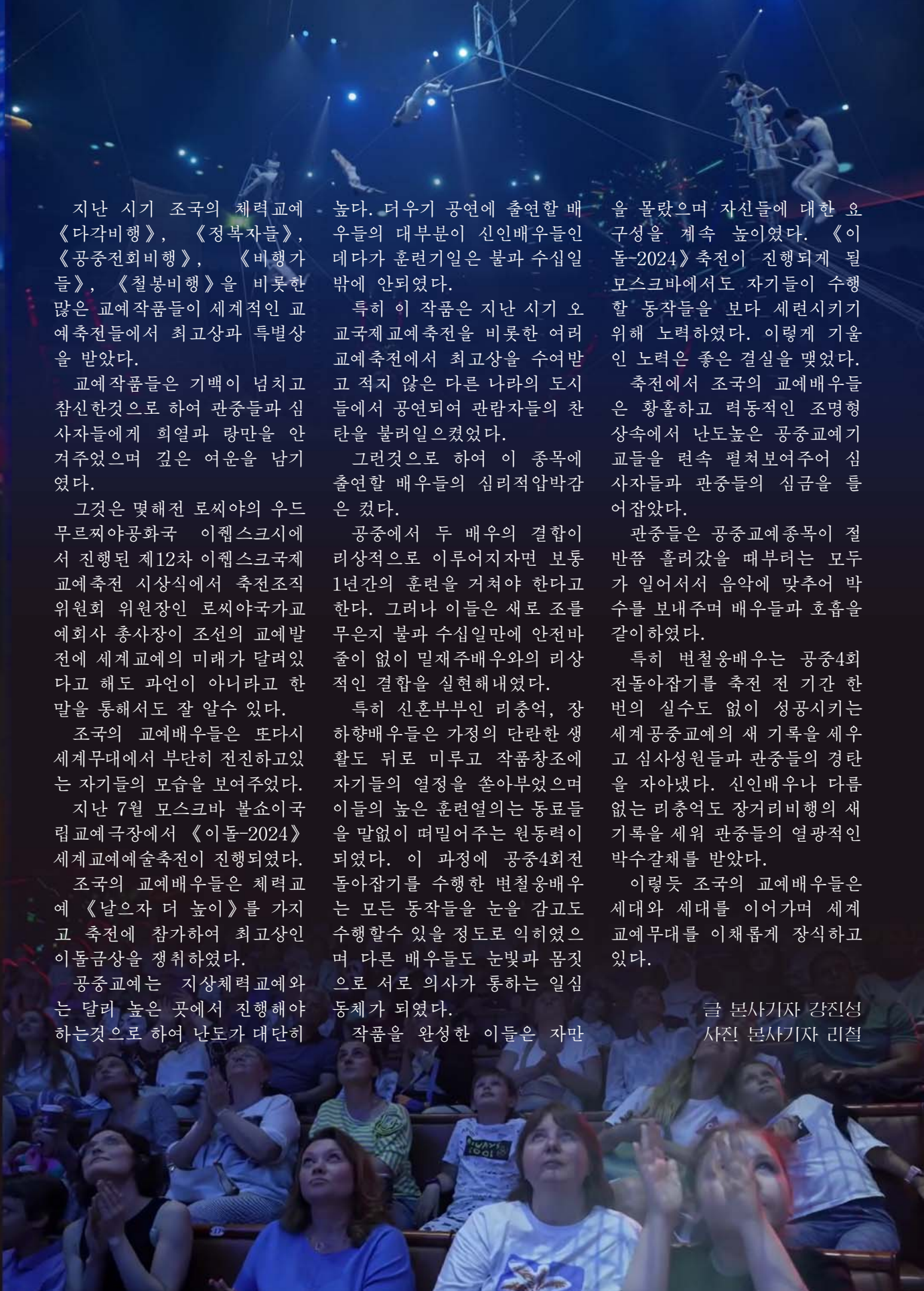
축전에서 조국의 교예배우들은 황홀하고 력동적인 조명형상속에서 난도높은 공중교예기교들을 련속 펼쳐보여주어 심사자들과 관중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관중들은 공중교예종목이 절반쯤 흘러갔을 때부터는 모두가 일어서서 음악에 맞추어 박수를 보내주며 배우들과 호흡을 같이하였다.

특히 변철웅배우는 공중4회전돌아잡기를 축전 전 기간 한번의 실수도 없이 성공시키는 세계공중교예의 새 기록을 세우고 심사성원들과 관중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신인배우나 다름없는 리충억도 장거리비행의 새 기록을 세워 관중들의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렇듯 조국의 교예배우들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세계교예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고 있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리철

장편력사소설 《삼족오》와 작가 리영민

《소설에 나오는 <삼족오>라는 비밀정보조직은 실지 존재하였습니까?》

《고구려시기 태왕직속의 비밀정보조직은 존재했지만 <삼족오>라는 제목은 나의 허구입니다. 다리가 세개 달린 까마귀라는 뜻을 가진 삼족오는 전설로 전해지는 신비한 새였다고 합니다. 고구려무덤벽화들에도 삼족오가 많이 그려져있습니다. 하여 나는 비밀정보조직의 명칭을 <삼족오>라고 달았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중 도림과 아진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모두 실재한 인물인지 알고싶습니다.》

《예, 주인공이 사랑하는 아진을 제외한 등장인물들은 력사기록에 실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인기도서로 되고있는 장편력사소설 《삼족오》를 본 기자와 작가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2022년에 소설 《삼족오》(제1부)는 우리나라 력사에서 제일 강대하였던 고구려의 장수왕시기를 력사적배경으로 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키려는 적들의 음흉한 모략을 짓부시고 사랑도 가정도 지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태왕직속의 비밀정보조직인 《삼족오》성원들의 애국정신과 투쟁이야기를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이 출판된 후 사람들은 필자에 대하여 많은것을 알고싶어하고있다.

20여년후 완성된 처녀작

소설의 필자는 조선작가동맹 맹원 리영민이다.

1995년 3월 모란봉제1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에서 공부한 그는 대학시절 많은 학과목들중에서 조선력사과목을 제일 사랑하였고 력사소설도 많이 읽었다. 그가 제일 애독한 소설은 홍석중작가가 쓴 장편력사소설 《높새바람》이였다고 한다. 당시 소설이 그에게 준 충동은 컸다.

홍안의 리영민은 홍석중작가처럼 력사의 이끼에 묻혀진 사실들을 현시대인들에게 방불하게 펼쳐보이리라 결심하였다.

대학기간에 그는 많은 력사자료들을 발취하며 소재를 탐구하고 력사지식과 상식을 넓혀나갔다.

그후 그는 졸업작품으로 력사소설의 초고를 집필하였으나 그것을 내놓지 못하였다. 욕망과 실천사이의 거리가 멀다는것을 그는 그때 깨달았다.

력사지식의 빈곤, 체험의 부족을 강렬히 느낀 그는 대학졸업후 속도전청년돌격대에 탄원하여 지하막장에서 광석을 캐내였고 그후에는 군사복무도 하였다. 이 나날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체험의 귀중한 나날들이였고 소설속의 주요인물들을 훌륭히 그려낼수 있는 원천으로도 되였다.

제대된 후 그는 직업상특성으로 여러 나라들에 나가 문예인들과 사업하는 과정에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깊이 심어주는데서 문학작품 특히 력사소설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절감하였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의 력사학술론문집들도 심도있게 연구하였으며 구월산의 사황봉과 아사봉, 장수산을 비롯하여 산세험한 조국의 여러 곳을 편답하면서 지형지세 등을 정확히 기록하였다.

이렇게 대학졸업후 20여년동안 문학수업을 한 후에야 그는 자기의 처녀작을 완성하였다.

첫 독자

리영민작가는 자기의 처녀작을 아버지에게 먼저 보였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영화문학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김일성**훈장수훈자이며 **김일성**상계관인, 2중로력영웅인 작가 리춘구이다.

아버지는 기뻐하였지만 며칠동안 펼쳐볼 생각을 못했다.

리영민작가는 몇번이나 바재이다가 겨우 아버지에게 소설이 어떤가고 물어보았다.

그때에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 자식의 작품이여서 그런지 선뜻 볼수 없었다고, 소설을 읽고 실망하면 어쩔가 하는 마음에 펼칠수 없었다고 속을 터놓았다.

영민작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리해되였다.

이렇게 되여 소설은 어머니가 먼저 보게 되였다. 밤새워 책을 다 읽은 어머니는 정말 잘 썼다고 아들을 고무해주었다.

아버지는 온 가족이 다 륜독한 다음에야 아들의 소설을 읽었다.

소설의 마지막페지를 덮은 날 저녁 아버지는 퇴근한 아들을 불러앉히고 《우리 집에 또 한명의 작가가 태여난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말하였다.

소설이 발표되자 평론가들은 《장편력사소설 <삼족오>는 종전의 력사소설들에서는 취급하지 않은 소재를 가지고 새로운 전개방식과 문체로 씌여졌다.》라고 평하였다.

리영민은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 이름보다 리춘구작가의 아들이라고 부르고있다. 나는 이 부름이 아버지처럼 한편한편의 작품을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생활의 교과서적인 작품을 창작하기를 바라는 인민의 기대이고 당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리영민작가는 장편력사소설 《삼족오》의 련속부들을 완성한 다음에는 현대청년들의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품을 쓰려는 결심을 표명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엄향심

상 식

병치료에 좋은 귀잡아당기기

수시로 귀를 잡아당기면 건강에 좋다.

고혈압인 경우 귀바퀴뒤 움푹 패인 곳을 누르면서 잡아당긴다.

귀바퀴의 웃쪽 뒤면에 움푹 패인 곳을 강압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귀앞면을 집게손가락으로 눌러준다.

이렇게 눌러주면서 귀불의 밑부분까지 쓸어내리며 잡아당기면 뒤목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뒤목의 뻣뻣한 증상이 완화된다.

머리아픔이 있는 경우에는 귀불을 잡아당긴다.

스트레스로 인한 머리아픔증상일 때 귀잡아당기기로 해소시킬수 있다.

눈이 침침할 때에는 귀불을 누르면서 아래로 잡아당긴다.

오랜 시간의 TV시청, 콤퓨터작업 등으로 인한 눈의 피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다.

귀불가운데를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누른 후 밑으로 잡아당긴다.

처음에는 약간 세게 누르면서 50번정도 계속 반복한다.

어깨와 허리아픔이 있는 경우에는 귀가운데 대이룬주변을 자극하면서 잡아당긴다.

어깨와 허리의 반사대는 귀가운데에 불룩 뛰여나온 대이룬주변이다.

이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목을 좌우로 돌리면 더 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한다.

고려의학에서는 귀가 인체의 모든 부분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다고 보고있다.

때문에 일상적으로 귀를 잡아당기면 몸의 각 부분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머리를 맑게 할수 있으며 병치료에도 좋다.

* * *

모녀승마애호가

승마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애착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속에 승마애호가들의 수도 늘어나고있다.

그들중에는 평양시 평천구역 정평동 28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주혜성녀성(36살)과 그의 딸인 한효은(11살)도 있다.

이들이 승마운동을 시작한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전이다.

당시 평천구역 봉학소학교 2학년생인 효은이가 겨울방학을 보내던 어느날 어머니에게 미림승마구락부에 가자고 하였다. 리유인즉 TV에서 어른들뿐 아니라 자기또래의 아이들이 척척 말을 몰아가는것을 보니 자기도 타고싶다는것이였다. 남달리 승벽심이 강한 딸애의 심정이 십분 리해되여 주혜성녀성은 딸을 데리고 미림승마구락부로 갔다.

미림승마구락부에 펼쳐진 이채로운 광경은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작은말에 올라 제법 으시대는 어린이, 말에서 떨어질가봐 긴장감이 가득 어린 얼굴로 조심히 박차를 가하는 처녀, 청춘의 혈기를 되찾은듯 젊은이들과 경쟁하며 힘차게 말을 몰아가는 로인을 비롯하여 남녀로소 할것없이 승마운동을 하는 모습은 모녀에게 큰 충동을 주었다.

그때부터 승마운동은 그들에게서 떼여놓을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였다. 휴식일과 명절일이면 모녀의 발걸음은 자연히 미림승마구락부로 향하였고 그들의 승마술도 날로 늘어만 갔다.

결코 승마술만이 아니였다.

특히 효은이의 성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 승마운동을 하는 과정에 몸이 튼튼해지고 성격도 쾌활해졌으며 탐구심과 사고력이 높아졌다.

딸애의 성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주혜성녀성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승마명수로 키울 결심이 자리잡게 되였다.

주혜성녀성은 효은이가 말타기를 순수 취미로만 여기지 않고 더 많은 지식을 터득하는 학습과정으로 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었다.

그는 승마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은이와 함께 미림승마구락부에 꾸려진 승마지식보급실에 들려 딸이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승마풍습과 말의 생물학적특성들을 잘 알도록 하였다. 그리고 승마술의 묘리를 터득하는데 필요한 참고서들도 구해주면서 효은이의 탐구심을 적극 북돋아주었다. 이외에도 그는 딸에게 승마훈련을 하는 과정에 느낀 소감을 꽉꽉 글로 쓰도록 하였다.

승마훈련을 시작한지 한달이 되여오면서부터 효은이는 여러가지 승마기교동작들을 능란하게 수행할수 있었으며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집중력, 감상력도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지난 2022년 3.8국제부녀절기념 승마경기에서 한효은학생은 작은말 구보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고 메달과 상장을 수여받았다.

승마운동은 주혜성녀성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딸과 함께 승마술을 련마하는 과정에 승마와 관련한 폭넓은 지식을 쌓은 주혜성녀성은 얼마전에 조선마술협회 회원으로 되였다.

주혜성녀성은 《수많은 관중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진행되는 승마경기에 처음 참가한 딸애가 우승을 쟁취한것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커다란 긍지로 되고있다. 승마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은 참으로 아름다와지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지금 모녀승마애호가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들마다에서 우승을 쟁취할 열의를 안고 휴식일과 명절일은 물론 여가시간에도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아와 승마훈련을 맹렬히 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상식

승마운동의 좋은 점

승마운동의 좋은 점은 우선 사람의 시야를 넓혀준다는데 있다.

말을 다루면서 말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연구심과 사고력이 높아지는 과정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한다.

승마운동은 사람들의 성격수양에도 좋다.

승마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호방하고 진실하며 용감하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말의 울음소리는 생기를 북돋아주고 말의 속도는 열정이 넘치게 하며 말발굽소리는 심금을 울려준다.

승마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말이 스스로 자기 의사를 따르게 하겠는가를 연구하고 말과 친숙해지기 위해 애쓰기때문에 그 과정에 자연히 성격도 달라지게 된다고 한다.

승마운동은 몸단련에 아주 좋다.

말을 다루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온몸의 운동능력을 제고하고 뇌를 특별히 발달시켜 사고력을 높일수 있게 된다.

승마운동은 온몸의 혈액순환과 물질대사과정을 촉진시켜 근육과 뼈를 단련시키고 내장기능을 높여준다.

승마운동은 계절에 관계없이 할수 있고 자기 능력과 요구에 따라 운동부담을 조절할수 있다.

* * *

독특한 멋을 주는 《삼선암》 봉사기지들

금강산의 삼선암

금강산의 기묘한 삼선암이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았듯이 우리는 봉사활동을 더 잘하여 평양의 《삼선암》으로 되게 하겠다.

박금녀

삼선암합영회사 사장 겸 삼선암전시장 경리 박금녀(오른쪽으로부터 세번째)

미래과학자거리에 위치하고있는 삼선암전시장과 평양고려호텔옆에 있는 삼선암식당은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이 봉사기지들은 삼선암합영회사에서 운영하고있다.

2019년에 문을 연 삼선암전시장의 연건축면적은 1 400여㎡이다.

전시장은 식당, 상점, 편의봉사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있다.

식당에서는 소불고기를 전문으로 봉사하고있다. 등심살, 안심살을 비롯하여 부위별로 세분화한 소고기와 신선한 과일즙을 넣어 만든 불고기양념즙은 독특하고 고유한 맛을 돋구어준다.

이곳의 불고기는 그 맛이 하도 좋아 일명 《삼선암불고기》라고도 부르고있다.

식당의 벽면들에는 고전우표들을 형상한 미술작품들도 걸려있는데 이것들은 민족사에 이름을 남긴 화가들이 그린 작품들을 반영한 우표들을 확대한 그림들이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나라의 첫 우표들중의 하나인 《삼선암》에 대해서도 머리속에 떠올리군 한다.

상점에서는 다양한 경공업제품들과 함께 피복주문을 받아 민족옷과 류행옷들을 만들어주고있다.

그런가 하면 쑥, 탄산, 약초를 비롯한 여러가지 치료욕제들을 리용하여 목욕봉사도 진행하고있다.

삼선암식당 역시 20여년전부터 독특한 음식맛으로 국내에서 자기 얼굴이 있는 식당이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평양방문의 나날 어김없이 들리군 하는 이곳은 오늘도 전통적인 맛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고있다.

한번 오면 누구나 단골손님이 되는 《삼선암》봉사기지로는 많은 손님들이 오고있다.

주조 외교단 성원들과 해외동포들은 《평양에 가면 <삼선암>전시장에 꼭 들려보아야 한다. 거기에 가면 민족적 향취를 느낄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평

고향소식

자기 힘을 믿고 행복을 가꾸어간다

우시군은 자강도 서부의 압록강과 접해있는 크지 않은 산골군이다.

우시라는 지명은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 기우제를 지내던 고장이라는데로부터 유래된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우시땅은 척박하여 예로부터 사람 못살 고장으로 일러왔다. 감자나 귀밀농사를 지으며 살던 이 고장 화전민들은 살길을 찾아 하나둘 정든 고향을 떠나 이국땅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속에는 중국 흑룡강성에서 살고있는 홍지수동포의 아버지도 있었다.

그러했던 우시군이 오늘날 자연지리적특성에 부합되는 발전목표와 전망계획을 세우고 부흥을 이룩해가는 군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찾는 고장으로 되고있다.

이렇게 된데는 군면적의 80%이상을 차지하고있는 산림을 최대로 리용하고 잘 가꾸어 지역발전의 든든한 밑천으로 만든데 있다.

군에서는 해마다 머루, 다래, 돌배, 도토리를 비롯한 산열매들이 많이 나고있다. 군의 일군들은 산을 잘 리용하는것을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활적인 문제로 여기고 전군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수확철이면 군안의 공장종업원들, 주민들까지 떨쳐나 허실없이 산열매를 거두어들이니 군살림살이에 도움을 주는것은 물론 현대적으로 일떠선 군식료공장에서 쓸 충분한 원료원천이 확보되여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그 나날 군주민들은 산을 잘 리용하는것도 좋지만 더 잘 가꾸는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였다. 군에서는 다양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중시하고 군발전에 필요한 원료원천들을 산에서 얻을수 있게 유용림면적을 대대적으로 늘이였다.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유모란을 풍토순화시키고 재배면적을 늘여 군에 필요한 기름원천을 확보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것도, 머루, 다래, 단나무 등을 더 심어 산열매림을 늘인것도 다 이 과정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가구공장, 종이공장을 비롯한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이 오늘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올해에만도 군산림경영소에서는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기름밤나무, 살구나무, 단나무를 비롯하여 17종에 수백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군의 자원을 더욱 풍부히 하였다.

그리고 수백정보의 약초밭에서 나는 도라지, 울무, 대황, 오미자, 단너삼, 찔광이 등으로 생산한 갖가지 고려약들과 건강식품들이 군지경을 벗어나 다른 지역들에서도 그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군에서 중시한 또 하나의 문제는 물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한것이다. 우시1호, 2호발전소를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경험에 기초하여 군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전망적으로 늘어나게 될 전력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물원천이 풍부한 충만강에 우시3호발전소를 건설하고있다. 발전소들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군안의 가정세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방공업공장들의 동력문제를 풀어서만 좋은것이 아니다. 저수지의 물고기자원이 늘어나고 주변풍치도 더욱 아름다워지기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이 일떠섬으로써 흙층이 얇고 척박한 군안의 농경지를 기름지게 걸구어 다수확을 내다볼수 있게 하였다.

산이 많은 자강도에서도 막바지군으로 알려진 우시군의 전변된 모습은 어느 고장이든 자기 지역의 자연지리적특성을 잘 리용한다면 능히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만약 홍지수동포가 아버지의 고향인 우시군을 찾는다면 자기 힘을 믿고 행복을 가꾸어가는 군주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을것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리춘남

자원개발탐사에 바쳐진 50여년

조국의 품에 안긴 리춘남의 가족

지금으로부터 64년전 11월 청진항을 가까이하고있는 귀국선의 갑판은 조국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몇시간전부터 나와있는 사람들로 붐비였다. 그들속에는 공화국기를 손에 든 당시 12살 난 소년이였던 리춘남도 있었다.

그때 배전에서 조국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은 끝없이 설레였다.

(외삼촌의 말대로 조국에 가면 마음놓고 공부할수 있을가?)

일본땅에서 태여난 그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아 마을에서 신동으로 소문이 났었다. 그런 그를 어떻게 해서나 공부시켜보려고 부모는 물론 외할머니까지 온종일 품팔이를 하였다. 하여 그는 온 가족이 피땀으로 번 돈으로 일본학교에서 공부할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생활은 어린 그에게 가슴아픈 추억만을 남겼다.

학교적인 시험때마다 성적이 뛰여났어도 조선학생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하여 그는 언제 한번 1등의 자리를 차지할수 없었다. 그후 그는 날로 심해지는 민족적차별과 높아지는 학비를 낼수 없어 끝내는 학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그에게 희망의 빛이 비쳐들었다. 조국이 일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에게 귀국의 배길을 열어준것이였다.

귀국을 앞두고 일본 오사까부의 자그마한 단칸집에 일가친척들이 모인 그날 외삼촌이 조국에 가면 마음놓고 공부할수 있을것이라고 하던 이야기는 당시 어린 리춘남에게는 꿈같이만 들리였다.

하지만 그것이 꿈이 아님을 그는 조국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였다.

조국은 바람세찬 이역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만을 받으며 살아오던 그의 가족을 따뜻이 맞아주었다. 그들에게 새 살림집을 무상으로 배정해주었고 며칠후에는 그가 바랐던 학교에 보내주었으며 공부하는데 필요한 새 교복과 책가방, 교과서와 학용품도 안겨주었다.

행복은 나날이 커만 갔다. 중학교를 졸업한 리춘남은 희망대로 고등탐사학교(오늘의 사리원지질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였고 그후에는 자원개발성 중부물리탐사대에서 일하게 되였다.

나라의 귀중한 자연부원을 찾아 방방곡곡을 편답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공부할수 있게 해준 조국앞에 사업성과로 보답할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였다. 그는 어려운 탐사가 제기될 때마다 자진하여나섰고 하루에도 수십리의 험한 산발을 오르내리며 정열을 쏟아부었다. 점차 탐사대의 중진으로 성장한 그는 탐사에서 자신의 기술실무적자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특히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와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능력확장을 위한 자원탐사에서 그는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탐사대가 적용하던 기존탐사방법에 의거하면 탐사기일과 정확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없었다. 결정적으로 새로운 탐사방법들을 도입하여야 하였다. 리춘남은 선진탐사방법들을 연구하고 도입시험을 거듭하면서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는 탐사방법들을 찾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였다. 이와 함께 기능공들과 합심하여 능률높은 탐사기구들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밀고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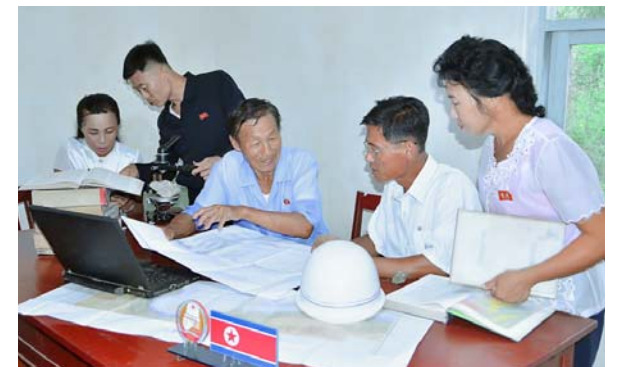
그 과정에 그는 효률적인 탐사방법들과 탐사기재들을 창안도입하게 되였으며 탐사대는 맡겨진 탐사과제를 일정계획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끝내게 되였다.

나라의 유용자원개발을 위한 탐사에서 맡은 본분을 다해가려는 그의 자세는 수십년세월이 지났어도 변할줄 몰랐다.

리춘남은 선진성과 과학성, 효률성이 보장된 10여건의 탐사방법들을 창안도입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이 나날 기사장으로 되였다. 한편 그는 자식들도 훌륭히 키워 자기의 뒤를 잇게 하였다.

이렇듯 50여년세월을 오직 보답의 마음을 안고 어렵고 힘든 유용자원개발사업에 헌신하는 리춘남기사장을 조국은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열성자회의에 대표로 불러주었고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었다.

올해 76살인 리춘남은 고령의 몸이지만 오늘도 자식들과 함께 나라의 재부를 늘여나가는데서 생의 기쁨을 찾으며 조국땅 방방곡곡에 무수한 발자욱을 새겨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나라의 자원을 늘여나가기 위한 탐사사업에 지혜를 바쳐가고있는 리춘남가족

유모아

제일 가치있는것과 가치없는것

몇몇 로인들이 한담을 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것과 가치없는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 로인이 친구에게 물었다.

《당신은 우리들중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니 알겠구만. 세상에서 제일 가치있는게 뭐요?》

《충고요.》

《제일 가치없는것은?》

《충고요.》

《이 령감이 사람을 놀리는군.》

묻던 로인은 쓰겁게 입맛을 다시며 눈을 흘기였다.

그러자 대답하던 로인이 말하였다.

《아니,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 뜻을 알수 있소. 충고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제일 큰 가치를 가지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지요.》

* * *

중국 료녕성 심양시 소가툰구 교송로
26-17-351 편재호오라버니 앞

언제나 그리운 오라버니에게

그리운 오라버니, 그간 안녕하세요.

조국에 사는 이 동생 오래간만에 펜을 들어 오라버니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무고한지요. 늘 살뜰하기만 하던 형님과 사랑하는 조카 옥란이와 대현이도 건강한 몸으로 다 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이름들을 조용히 불러보니 오라버니의 가족을 만나던 때가 어제일인듯 눈앞에 삼삼합니다.

교육자가정에서 나서자라서인지 모든 언행에서 지성미가 엿보이는 형님과 이악하게 대학공부를 하여 의사인 남편과 어깨를 겨루며 과학기술의 높은 경지에 올라서기 위해 노력하고있을 옥란이 그리고 부모님들께 효성이 지극한 대현이네 부부…

옥란이네 두 아들도 이젠 퍽 컸겠지요. 10여년전 내 품에 안겨 방긋거리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해 이젠 몇살이나 되였을가 손가락을 꼽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애가 벌써 중학교학생이 되였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혹시 이 고모할머니를 아예 몰라보지나 않겠나 하여 은근히 걱정도 됩니다.

이따금 저는 끝간데없이 펼쳐진 넓으나넓은 하늘을 바라보군 하는데 그때마다 저 푸른 하늘아래 어딘가에 그리운 오라버니와 형님, 조카들이 살고있겠구나 하는 그리움이 북받치군 합니다.

해방전 이역땅에서 망국민의 설음을 안고 헤매이던 재룡오빠는 조국의 귀중함을 그 누구보다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였기에 전쟁이 일어나자 손에 총을 잡고 제일먼저 참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웠다고 했지요.

재룡오빠가 피흘려 지킨 땅,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가슴속에 안고 간 이 강산.

재룡오빠가 그토록 삶의 뿌리를 내리고싶어하던 이 강토에서 다름아닌 내가 세상만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땅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천지개벽되여가고있습니다.

오라버니도 중국에서 여러 신문과 통신, 방송을 통해 조국소식을 들어 알다싶이 우리 조국에서는 인민이 바라는 모든 꿈과 리상이 국책에 반영되고있으며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통이 크게 벌어지고있습니다.

평양시에서만도 5만세대 살림집건설이 본격적으로 벌어져 송화거리, 화성거리, 림흥거리, 전위거리에 평범한 사람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새집을 받아안았습니다.

그 어느 공장, 그 어느 기업소에 가보나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생산장성을 이룩하기 위해 헌신하는 근로자들을 볼수 있고 자기 고장의 원료와 자재에 의거하여 지역인민들의 생활을 한계단 추켜세우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지금 저와 남편, 두 아들은 변천하는 시대에 사는 주인공들이라는 긍지와 보람을 안고 맡은 일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습니다.

보고싶은 오라버니!

할말은 많지만 그만 쓰려고 합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온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바랍니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옥류1동 54인민반
편재순동생 올림

국가비물질문화유산-풍산개문화

풍산개는 수천년동안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조선의 특산종, 명견이다.

우리 인민은 오랜 력사적기간 풍산개와 관련한 풍속에서 자기의 고유하고 우수한 생활문화를 창조하였다.

여기에는 풍산개의 기르기와 길들이기, 풍산개를 리용한 사냥관습, 풍산개관련설화, 풍산개를 주제로 한 소설, 영화, 미술작품 등 여러 형태의 예술작품, 풍산개품평회를 비롯한 풍산개순종의 등록조사와 평가, 과학기술지식의 보급, 풍산개와 관련한 학술연구와 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활동이 포함된다.

풍산개문화는 우리 인민들이 개를 기르고 길들이면서부터 그 시초가 마련되였다.

100만년전부터 우리 나라 산간수림속에서 살고있던 늑대들은 점차 인류의 진화와 함께 사람들에게 길들여져 구석기후기에는 원시개로 되였다.

우리 나라의 룡곡동굴유적과 석장리유적 등 여러 유적들에서 발견된 개뼈와 돌조각들은 구석기시대에 벌써 우리 나라에 많은 원시개들이 살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개들은 사람들의 생활령역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본격적인 집짐승화과정을 거쳐 조선토종개의 시조를 이루게 되였다.

각이한 생활환경과 기후에 적응된 토종개는 여러 계통과 갈래를 이루면서 저마다 자기의 종적특성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었다.

고조선시기의 력사유물들과 고구려시기 무덤벽화들, 고려시기 력사이야기들에서 나오는 개들의 형상은 고조선시기에 벌써 풍산개의 시조가 형성되여있었으며 우리 인민들의 관심속에 자기 발전의 장구한 력사적행로를 걸어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풍산개의 원산지는 량강도 김형권군(이전의 풍산군)일대이다. 풍산개는 우리 나라의 토종개로서 우리 민족의 기상을 그대로 닮았다고 할수 있다.

풍산개는 매우 령리하고 평소에는 성질이 온순하며 자기를 길러주는 주인을 잘 따르지만 적수에 대하여서는 아주 사납다. 풍산개는 서양개에 비하여 몸집은 작지만 대단히 날래고 이악하며 그 어떤 맹수앞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기 주인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한 풍산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있다.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으로 멸종위기에 처하였던 풍산개는 조국이 해방된 후에야 다시 번성하게 되였다.

국가의 자연보호정책에 의하여 풍산개는 1956년 4월 국가천연기념물 제368호로 등록되였다. 2014년 풍산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국견으로 정해지고 2022년에는 풍산개문화가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제120호로 등록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풍산개는 인민들의 사랑속에 원종을 유지하면서 고유한 특징을 보존하고있으며 풍산개순종의 보호증식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신평금강

신평금강은 우리 나라 중부지대로 뻗어내린 아호비령산줄기에 자리잡고있다.

신평금강은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암괴석들과 폭포들로 절경을 이루고 물산이 풍부한것으로 이름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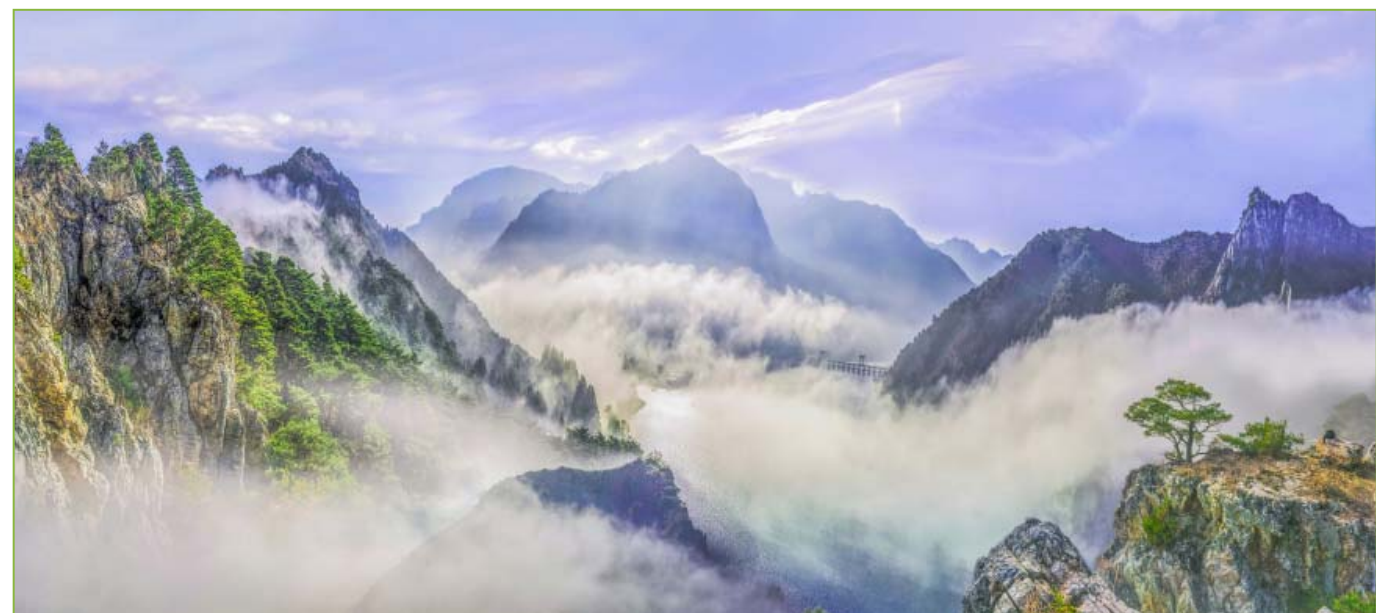
명승지들은 어느것이나 다 자기의 독특한 모습이 있는것처럼 신평금강을 대표하는 아름다움은 계곡경치이다.

신평금강은 좁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이채로운 풍경속에 청신함과 황홀함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다른 명승지들과 구별된다.

특히 사시절 마를줄 모르는 맑은 물이 협곡마다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윽한 정서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드문것이다.

진주계곡과 금강계곡, 옥류동계곡 등 신평금강의 계곡들에 펼쳐진 가지가지의 경치와 명소들, 각이한 크기와 모양의 폭포들과 담소들, 층층이 단을 이루며 절벽을 따라 형성된 수림은 계곡미의 절경을 더해주고있다.

매우 좁은 협곡지형에 여러 수종의 바늘잎나무들과 넓은잎나무들, 꽃나무들과 과일나무들로 뒤덮여있는 명승지구역에는 각종 약초들과 산나물, 산짐승과 새들도 많다. 그리고 신평금강골안으로 흐르는 도화천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고있어 명승지의 운치를 더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김혁주, 김혁철

김장철에 펼쳐지는 이채로운 풍경

립동이 가까와오면 집집마다 김치를 담그는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식생활풍습이다.

자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하지만 조국에는 김장철이라는 류다른 계절이 있어 해마다 이때에는 김치담그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지군 한다.

이 계절에는 조국땅 어딜 가나 한동네에 사는 가정주부들은 물론 친척들이 한데 모여 배추를 절구고 양념소를 만들며 흥에 겨워 웃고떠드는 모습을 볼수 있다. 또 집에서 담근 김치와 양념을 담아들고 이웃들과 나누려 다니는 주부들과 결혼후 첫 김치라 조언을 받으러 가는 새색시들의 모습도 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앉아 맛있게 담근 김치를 맛보면서 서로 기뻐하며 경험을 나누는 모습으로 하여 더욱 이채로운 풍경이다.

김치는 조국인민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식물로 되여있다. 그래서 조국인민은 《만반진수 차려놓고 김치깍두기 없으면 아주 맛없네》라는 《김치깍두기노래》를 즐겨 부르고있다.

김치가운데서 가장 널리 담근것은 김장김치였다.

고려중엽의 문장가인 리규보는 시 《가포륙영》에서 무우, 오이, 가지, 파 등의 재배와 저장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

절여두면 여름에도 좋은 반찬이요

김장담가 온 겨우내 먹을수도 있구나

…

재능있고 탐구심이 강한 선조들은 오랜 생활체험과정에 겨울에도 신선한 남새를 먹을수 있는 방법을 창안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김장김치였다.

가정들에서 김치를 담그고있다.

김치의 공업화가 실현되였다.

옛날부터 립동이 가까와오면 집집마다 무우와 배추로 김치를 담그었는데 이것을 김장이라고 하였다.

김장철에는 어느 가정,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김장담그기를 한해의 중요한 가정사로 여기면서 특별한 관심을 돌려왔다.

옛 문헌인 《해동죽지》에서는 립동이 가까와오면 집집마다 갓, 생강, 파, 마늘을 무우, 배추에 버무려 담그어 땅을 파고 묻기에 분망하다고 하였으며 《동국세시기》에서는 10월에 무우, 배추, 마늘, 고추, 소금 등으로 독에 김치를 담그는데 이것이 가정의 1년중 큰일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김장을 담그는것이 오랜 력사적과정을 거쳐 내려오는 전통적인 식생활풍습의 하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김치담그기풍습은 2013년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제2호로 등록되였으며 2015년에는 세계비물질문화유산의 하나로 등록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민족의 전통음식인 김치는 시원하고 쩡하면서도 독특한 향기와 상쾌하면서도 감칠맛을 조화롭게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아시아는 물론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널리 퍼져 세계적인 음식으로 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묘향산 보현사

조국인민들은 산세가 기묘하고 수려하며 경치가 아름다운 명산을 꼽으라고 하면 열에 아홉은 묘향산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할것이다.

이렇듯 묘향산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다.

더우기 붉고 누런 단풍으로 울긋불긋 단장된 묘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는 가을철에 이르러 계속 늘어나고있다.

그들과 함께 관광길에 오른 우리의 마음은 벌써부터 묘향산에 이르런듯 흥그러워만졌다.

리명순이라고 자기 소개를 한 관광안내원은 손님들에게 이렇게 서두를 뗐다.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있는 묘향산은 자강도 향산군, 희천시, 평안남도 녕원군의 넓은 지역에 자리잡고있습니다. 묘향산은 예로부터 우리 나라 명산들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절승의 하나로 일러왔으며 자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자랑하여왔습니다. 하기에 묘향산은 백두산, 금강산, 구월산, 칠보산 등과 함께 조선의 명산들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러분가운데는 묘향산에 다녀오신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의 이 말에 관광객들은 저마다 머리를 끄덕이였다.

《난 한 최근년간에만도 묘향산에 적지 않게 갔다왔수다.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인상을 받군 했는데 그게 바로 묘향산의 매력인것같구려.》

반백이 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학자풍의 한 남성이 점잖게 하는 말이였다.

《예, 그렇겁니다. 묘향산은 산세가 기묘하고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에서 11세기초부터 묘향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왔습니다. 그전에는 연주고을(녕변)에 속해있는 산이라고 하여 연주산이라고 불리웠으며 고려중엽이후에는 묘향산의 바위들이 류달리 희고 정갈하다는 의미에서 태백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웠다고 합니다. 묘향산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명산일뿐 아니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인 투쟁이야기가 깃들어있고 민족의 문화예술적기교와 창조적재능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들이 많은 명산입니다.

더우기 여러분도 다 알다싶이 주체조선의 국보인 국제친선전람관이 있어 그 이름은 더더욱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

이렇게 구수하게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안내원의 해설을 듣느라니 우리는 시간가는줄 몰랐다.

평양에서 향산으로 향한 도로를 따라 달리던 뻐스는 어느덧 묘향산입구에 들어섰다.

주차장에 내린 우리는 관광안내원을 따라 보현사로 걸음을 옮기였다.

건축형식이 다양하며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보현사는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건축술과 예술적기교를 잘 보여주는 절이였다.

이곳 주지의 말에 의하면 현재 묘향산에는 보현사구역안의 건물들과 보현사에 속하는 상원암, 금강암, 하비로암을 비롯하여 30여개의 옛 건물들, 여러개의 탑, 《팔만대장경》과 목판활자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력사를 전하여주는 가치있는 유적유물들이 있다고 한다.

문득 관광객들가운데서 누군가가 주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절의 이름이 보현보살의 이름을 따서 지은것이 사실입니까?》

그러자 주지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옳다고 긍정해주었다.

이윽하여 그는 《불교에서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부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을 이 절에 담았습니다. 보현사는 1042년에 처음 세워진 후 근 1 000년의 오랜 력사를 내려오면서 여러번 고쳐세웠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은 주로 1441년부터 1775년사이에 고쳐지은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수십채의 건물들이 처마를 맞대다싶이 즐비하게 늘어섰던 보현사는 지난날 묘향산의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그 장관을 자랑하여왔으나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에 의하여 본전인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동의 건물들과 여기에 보관되여있던 수천점의 유물들이 파괴소각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해 이곳에는 묘향산력사박물관이 세워졌고 대웅전, 만세루를 비롯한 건축물들도 원상대로 복구되였다.

우리는 주지의 해설을 들으며 영구보존되고있는 나라의 귀중한 인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과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 불경목판을 비롯한 유물들도 볼수 있었다.

관광객들과 함께 주지의 설명을 듣고있던 안내원은 손님들에게 《대장경가운데서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고 가장 완성된것으로 알려진 고려의 <팔만대장경>은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책이였지만 우리 선조들이 벌써 수백년전에 목판활자를 8만여매나 만들어 수천권에 달하는 방대한 대장경을 출판하였다는 그자체가 민족의 큰 자랑이 아닐수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우리는 보현사구역안에서 옛 건물들뿐 아니라 4각9층탑, 8각13층탑, 보현사비를 비롯한 여러개의 비석들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8각13층탑아래에서 가을바람에 날려가는듯한 청신한 방울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기념사진을 남기였다.

관광안내원은 보현사를 떠나기 아쉬워하는 손님들에게 다음 일정으로는 상원암등산이 기다리고있다며 걸음을 재촉하였다.

묘향산의 이름난 력사유적인 보현사를 돌아본 관광객들은 이제 수많은 봉우리들이 키돋움하듯 하늘높이 솟아있고 수정같이 맑은 폭포수가 쏟아져내리는 상원암등산길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생겨날가 하는 기대를 안고 저저마다 흥에 겨워 발걸음을 다그쳤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걸음보다 마음이 앞서 다음등산길로 서둘러 따라섰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김혁주, 송대혁

묘향산 보현사 대웅전과 8각13층탑

4각9층탑

김홍도의 화풍을 그대로 따른 김득신

우리 나라 봉건사회말기에 인물화의 내용과 형식에서 신통히도 김홍도와 비슷한 화풍의 화가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도화서 화원이였던 김득신이였다.

김득신(1754년-1822년)은 대대로 화원생활을 한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와 큰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모두가 도화서의 화원이였으며 동생들도 도화서출신들이였다. 그의 집안이 얼마나 많은 화원들을 배출하였는가 하는것은 형제들은 물론이고 자식들과 지어는 사돈집사람들까지 거의다 화원들이였다는데서 잘 알수 있다.

김득신의 자는 현보, 호는 긍재 혹은 홍월원이라고 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외켠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화원으로 있던 유리한 가정환경속에서 그림그리기에 온갖 정열을 기울이였다.

선조들의 재능을 넘겨받은 그는 그림을 잘 그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화서 화원으로 되였으며 특히 인물화를 잘 그리는 화가로 명성을 떨치였다.

김득신의 인물화는 내용과 형식에서 김홍도를 계승한것으로 하여 그림에 이름이 찍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의 그림인지 잘 알수 없었다고 한다.

하기에 김득신의 그림을 본 식견있는 사람들은 《김홍도와 견줄만하다.》고 그의 솜씨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의 그림그리기솜씨를 보여주는 한가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1783년에 김득신은 조정에서 실시한 화원선발시험에 참가하게 되였다.

당시 도화서는 례조에 소속된 관청으로서 화원 30명과 수십명의 견습생을 두고있었다.

도화서 화원은 례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된 사람들이 아니면 일정한 기간 그림그리기를 련마한 사람이여야 하였다. 그러나 김득신은 화원으로 되기 위한 시험에 곧바로 나섰다.

시험에서는 인물화, 산수화, 화조령모화 등 여러 방면의 그림제목이 제시되였는데 누가 빨리 더 생동하게 그려내는가 하는데 따라 승부를 갈랐다.

여기에서 김득신은 화조령모화를 그렸는데 얼마나 잘 그렸던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일약 화원으로 뽑혔다고 한다.

김득신의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량반과 농민》, 《고양이를 쫓다》 등이 있다.

《량반과 농민》 27×33㎝ 종이·담채

《장에서 돌아오는 길》 27.5×33㎝ 종이·담채

특히 《고양이를 쫓다》는 농촌생활에서의 희극적인 소재를 재치있게 형상한 독특한 작품이다.

그림에는 목침을 베고 잠을 청하던 상투쟁이가 병아리를 노리고 다가드는 고양이로 하여 놀라는 암닭의 소리를 듣고 토방우에서 곰방대로 고양이를 쫓고있는데 얼마나 덤볐는지 한발이 토방을 밟지 못하여 몸균형을 잃고있는 모습이 생동하게 펼쳐져있다. 한편 남편이 급한 동작을 하다가 토방우에서 떨어지는것을 본 안해가 그를 붙들려고 덤벼치는 형상을 해학적으로 실감있게 묘사하고있다.

그는 풍속화가였지만 동물화도 잘 그리였다.

진지한 생활탐구, 뛰여난 재치와 인물성격형상에서의 예리성, 묘사의 섬세성으로 하여 김득신의 그림은 19세기초 화단을 장식하고 이후시기 인물풍속화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식

《고양이를 쫓다》 22.5×27.1㎝ 종이·담채

《대장간》 22.5×27.1㎝ 종이·담채

상식

검은모루유적

검은모루유적은 구석기시대전기의 동굴유적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여왔다는것을 실증해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상원군 흑우리(검은모루)에 있는 이 유적은 1966년부터 1968년사이에 발굴조사되였다.

동굴안의 퇴적층에서는 원시인들이 쓰던 타제석기와 함께 수십종의 짐승뼈화석이 발견되였다. 검은모루유적의 석기들은 매우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갓 형성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로동활동의 결과에 의하여 이루어진 창조물들이였다.

검은모루유적에서 나온 석기의 종류에는 주먹도끼모양석기, 사다리형석기, 뾰족끝석기, 쪼각석기 등이 있다.

검은모루유적에서는 코끼리, 큰쌍코뿔이, 상원말, 큰꽃사슴, 넙적큰뿔사슴, 원숭이 등의 짐승뼈화석들이 발견되였다.

검은모루유적에 대한 과학적인 년대판정을 진행한데 의하면 100만년이전시기의 원인들이 남긴 구석기시대전기유적이라는것이 밝혀졌다.

검은모루유적은 우리 나라에서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사람이 살아왔다는것을 실증하는 매우 귀중한 유적으로서 구석기시대전기문화 특히 원시인들의 생활을 연구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　*　*

상식

바줄당기기

선조들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수많은 민족문화유산들가운데는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바줄당기기도 있다.

오늘날 바줄당기기는 대중적인 민족체육종목으로 더욱 계승발전되고 있다.

바줄당기기경기방법은 량편에서 각각 규정된 선수들이 출전하여 1m이상 먼저 끌어당긴 편이 이기는것으로 한다.

바줄의 굵기는 4~5㎝, 길이는 20~30m정도이다.

바줄당기기기술에는 높은자세에서 바줄당기기와 중간자세에서 바줄당기기, 낮은자세에서 바줄당기기, 앉은자세에서 바줄당기기가 있다.

높은자세에서 바줄당기기는 무릎을 굽히지 않고 바줄을 잡은 상태에서 몸을 뒤로 45° 경사지게 눕힌 자세를 취하는것이다. 이 자세를 취할 때 두발을 량쪽으로 어깨너비정도 되게 벌려디디며 두발끝은 될수록 바줄과 평행이 되게 짚어야 한다. 머리는 바깥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키큰 선수들부터 차례로 세우며 바줄뒤부분에는 바줄이 휘여드는것을 막기 위하여 몸무게가 무거운 선수 한명을 키잡이로 배치한다.

중간자세에서 바줄당기기는 무릎을 굽히고 바줄을 잡은 상태에서 몸을 뒤로 45° 경사지게 눕힌 자세를 취하는것이다. 이 자세를 취할 때 두발을 량쪽으로 어깨너비정도로 벌린 상태에서 한쪽발을 약간 뒤로 내짚는다.

낮은자세에서 바줄당기기는 무릎을 완전히 굽힌 상태에서 바줄을 당길 때에는 의자에 앉은것과 같은 자세로 바줄을 잡고 몸을 뒤로 45° 경사지게 눕힌다.

앉은자세에서 바줄당기기는 앉아서 바줄을 당기는 자세를 취하는것이다.

앉은자세에서 바줄을 당길 때에는 엉뎅이가 바닥에 닿을가말가 한 자세로 몸을 약간 뒤로 눕힌다. 이때 두발은 약간 량쪽으로 평행이 되게 벌려디딘다. 바줄을 잡은 상태에서 몸은 뒤로 약간 경사지게 눕힌다.

* * *

장기수풀이 (23)

장기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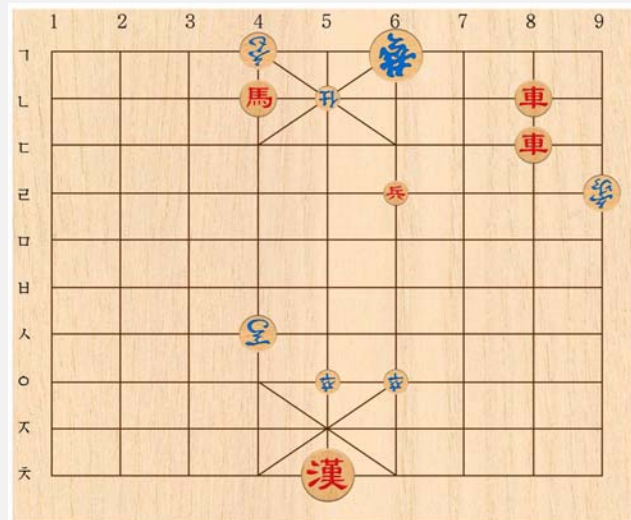
사본상이 춤을 춘다

상이 귀사를 잡으면 일반적으로 리득이라는 뜻이다.

상과 귀사의 호상관계를 놓고볼 때 이런 경우에 상이 손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무때나 귀사를 잡아도 된다는것은 아니다.

다른 쪽들이 다 없어진 마감단계에서는 상의 활동력과 위력이 대단히 크기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상이 죽으면서 귀사를 잡는것은 매우 심사숙고해야 한다.

장기수풀이 (22)에 대한 답

ㅈ8차ㄴ8, ㄹ5상ㄴ8, ㅇ6상ㅁ8, ㄴ6궁ㄱ6, ㅁ6말ㄷ7, ㄱ6궁ㄴ6, ㄷ7말ㄹ9, ㅁ2차ㅁ8, ㅇ9포ㄴ9, ㄴ8상ㅁ6, ㄹ9말ㄴ8,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뒤표지: 청학대의 두 계절/김혁주

ㄱ-24088023473